

2002년 월드컵과 시민통합과제

2002 World Cup and Issues for Citizenship

2000. 1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드컵지원연구단

Research Center for the 2002 World Cup,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이종철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박호성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일 (파이낸셜 뉴스)
서수경 (월계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내용	1
2. 이론적고찰	6
제 2 장 서울시민의 월드컵축구대회인식	71
제 3 장 서울시 월드컵 시민참여 체계현황	101
1. 공식체계	101
2. 비공식참여체계	110
가. 자원봉사조직	110
나. 축구동호회	112
3. 풀뿌리 시민운동의 현황과 당면과제	117
4. 평가 - 진단	120
제 4 장 처방: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대안들 ...	127
1. 유기적인 공식체계의 확립과 비공식체계 통합	127
2. 시민참여체계 강화	131
가. 대시민 월드컵 홍보 체계화	131
나.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140

다. 활용가능한 시민단체 확인 및 활용	142
라. 자원봉사 활성화	146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49
----------------------------	------------

에필로그.....	156
-----------	-----

참고문헌.....	159
------------------	------------

1. 국내문헌	159
---------------	-----

2. 국외문헌.....	160
--------------	-----

부록:

2002 월드컵관련 서울시민 참여의식조사	160
------------------------------	-----

제 1 장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내용
2. 이론적 고찰

제 1 장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02년 축구월드컵을 맞는 서울이 깨뚫어야 할 기본과제가 사람 문제라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생명-환경-문화로 압축되는 21세기의 화두도 결국은 사람문제로 귀결된다. 환경-문화도 결국은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는 추구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절반의 한국'이란 말 그대로 한국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총집결된 '특별'시다. 이 특별시에는 언제라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온갖 모순과 갈등이 내재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은 특별한 '위기의 도시'다. 고상하고 화려한 듯 보이는 서울시민의 삶은 서울에 고유한 도시문화가 없는 공허하고 외로운 삶이다.

도시발전의 기본적 바탕이 돼야 할 사람(시민)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서울. 시민의 뿌리가 약한 서울에 던져진 큰 잔치 2002년 월드컵. 한정된 예산을 갉아먹으며 치러야 할 월드컵에서 얻을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 즉 시민의 발전이다.

시민없는 월드컵은 근육질 선수나 회장사업에 눈먼 부박한 상흔의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 밖에 없고, 다음 잔치에도 박제화된 동원만이 되풀이될 뿐 어떤 발전의 모멘텀을 도출할 수 없다. 고유성을 갖춘 서울시민이 주인되어 치르는 잔치, 월드컵은

시민이 주도하는, 혹은 적어도 시민이 능동적 주체로 참여하는 월드컵이어야 한다. 월드컵을 통한 '서울문화의 세계화' '세계 속의 서울'도 결국은 서울'시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월드컵을 통해 서울사람으로서 동질감을 높이고 그것을 미래 발전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냐는 것은 오로지 서울사람의 몫이다. 서울시민, 서울시민의식의 확립은 향후 서울의 발전 뿐 아니라 남북한 전체, 그리고 세계 한민족의 통합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스포츠와 소외, 그리고 시민통합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기초로 1) 서울시민의 월드컵 대회인식 분석을 통한 상대적 소외(무관심)집단 확인과 2) 시민참여정신을 높이기 위한 전략방향 설정 및 실천대안 예시를 하고자 한다. 1)은 월드컵에 대한 서울시민 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2)는 ①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정리 ② 월드컵 시민참여를 촉진할 추진조직 대안 및 시민홍보-교육의 큰 틀 제시를 통해 시도하였다.

과거 1988년 서울올림픽을 비롯하여 최근 수많은 개최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는 우리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과시성, 전시성 행사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서울시민의 평균소득이나 생활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각종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보상할 사회적, 문화적 성취감이 필요하다. 이 또한 시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일 양국 20개 도시가 함께 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에서는 개최도시간 네트워크와 경쟁적 협력이 요구된다.1) 개최도시간 네트워크는 조직위나 시정부간 행정협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

민모임과 같은 저변의 연계가 더욱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개최도시가 시민주도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쟁이든 협력이든 우리의 준비는 많이 모자라며, 특히 국가의 간판도시인 서울에서마저 시민저변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최근 남북한정상회담 이후 확대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와 고조된 화해분위기 속에서 남북한 분산개최 가능성, 또 그에 따른 민족통합촉진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0년 10월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된 통일축구대회가 단발로 끝난 것처럼, 이번 월드컵 분산개최도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검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남북한 교류 역시 일회성이라는 유사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도 월드컵 축구 기간, 또한 그 이전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최 형식 및 적절한 역할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간차원에서 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 사이에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세계각국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와 남북한 주민 간에 민족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면밀한 접근과 실천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그 일부로서 서울시라는 제한된 공간에 국한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어떤 부분에 관한 설명은 서울시라는 특수한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한영주, 2000. "월드컵과 도시발전: 2002년 월드컵의 개최전략과 실천방향" 『도시문제』 2000. 10.

본 연구처럼 월드컵축구가 개최되는 한 도시에 관한 고찰은 최소한도로 필요한 연구과제다. 향후 올림픽이나 각종 국제경기 대회는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들과 관련자 뿐 아니라, 관람객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한 기본 이해와 심도있는 고찰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학 분야를 넘어서, 자연과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적 접근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올림픽연구를 중심으로 성과가 축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두드러진 연구성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훨씬 폭 넓은 분야이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스포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스포츠는 더 이상 관심있는 일부 사람들의 영역에 머물 수도 없고, 머물러서도 안된다는 것이 본 연구진의 생각이다.

본 연구는 월드컵과 시민참여·통합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서울시가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정책매뉴얼보다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준거의 틀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4장에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나 전문가 워크숍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월드컵에 동원·가동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 착수단계에서 논의가 되었으나 1차 조사결과 매우 회의적으로 나타난 바, 향후 개별단체, 특히 지역사회의 소규모 운동단체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동원가능한 자원을 확인하는 추가작업이 필요하

다고 본다. 다만 추후 연구를 위한 방향제시의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시민단체의 큰 범주들과 그 역할을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빈 면

2. 이론적 고찰

1) 서울시와 서울시민이란 어떤 존재인가?

-현대적 대도시로서 서울시의 특징과 서울시민의 고독: 일 상으로부터 도피 심리

서울시는 조선왕조의 건국 이래 전통적 도읍지로서 역할을 다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수도로 결정된 이후에는 근대적 대도시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 서울시는 상주 인구 1천만이 넘는 현대적 대도시로 성장해왔다.²⁾ 서울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원과 인력이 집중된 세계적 도시로서 '작은'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에는 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왕궁, 고궁을 비롯하여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왕조시대의 유물, 유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876년 개항 이후 조선과 국교를 수립한 서양의 문물 도입 뿐 아니라, 20세기 초 일제의 강점 시기에 도입된 근대적 건축 양식과 해방 이후 서울에 주둔한 미군정 시절 유입된 외래 문화의 유산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비록 3년 여에 걸친 한국전쟁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적이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고 유실되었지만, 서울의 전통적 유산은 극히 일부일 지라도 유형, 무형으로 전래되어 오고 있다.³⁾

2) 권태환 외, 「서울의 전통 이해-인구와 도시화」(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7) 참조.

3) 강홍빈,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서울학연구소, 1996) 참조.

최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근대화의 추진과정에서 훼손된 전통문화유적지를 발굴, 복원하고 잊혀진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일지라도 주목할만한 변화이다.⁴⁾ 그 결과 서울시와 각 구에서는 전통적 생활양식과 사회풍속 등의 재현을 소재로 삼아 문화축제를 여는 등 새로운 서울의 문화상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⁵⁾

그러나 서울시의 또 다른 측면은 근대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 시민사회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⁶⁾ 근대적 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서구민주주의의 성취와 함께 발달한 서구 시민사회의 속성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

서울시[시민사회]는--서유럽에서 성취한 국가시민의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요소들, 즉 오늘날 '법률적으로 무차별한' 정형에 속하는 활동들,

4) 이준희, 「서울의 문화유산탐방기」(서울학연구소, 1997) 참조.

5) 장철수 외, 「서울의 사회풍속사」(서울학연구소, 1995) 참조.

6) 역사적으로 시민사회론의 계보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소급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polis)는 공동선의 형성과 실현에 참여하는 공적 시민의 공동체였다. 따라서 공적 시민이 직접 지배하는 국가에서 국가는 시민사회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사상적 성찰은 근대 초기 사회계약론자들에 이르러 시작되어, 이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개념과 역사적 기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anfred Riedel, *Studien zu Hegel Rechts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69); 만프레드 리델/황태연 옮김, 「헤겔의 사회철학」(서울: 한울, 1983) 및 신광영,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팔무, 김호기 역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서울: 한울, 1995), 80-123쪽. 근대시민사회와 근대시민에 관한 정치사상적 해명은 박호성, 「루소의 정치사상-시민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3) 참조하라.

‘재가’와 명확한 ‘의무’없이 작용하지만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관습, 사고와 행동방식의 형성 및 도덕에서 객관적인 결과들을 낳는 서울시[시민사회]의 지배하에 있는 활동들을 내포한다.⁷⁾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공동체적 삶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에게 삶의 영위와 능력 완성을 위한 사회적 필요를 제공한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필요는 일찍이 근대시민사회가 근대인에게 갖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탁월한 능력들을 발달시켰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근대시민사회는 인간의 미, 가치, 선, 도덕성의 관념들을 낳게 하며, 근대인에게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해하는 것, 느끼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학문과 예술의 진보는 시민사회의 진보와 인간의 행복 증대의 조건으로서, 어쩌면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편견은 지식에 의해서 사라지고, 풍속은 예술에 의해서 부드러워지며, 자연은 학문에 의해 정복될 것이다.

7) S. Kebir, *Gramsci's Zivilgesellschaft* (Hambrug: VSA, 1991), p. 19, 강조는 그람시 원문의 인용임. 번역은 김호기, “그람시적 시민사회론과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127-28쪽 참조. 이하 본문에서 []로 표기하는 부분은 인용 원문이지만 문맥상 바뀌서 필요한 경우에 근대시민사회는 [서울시]로, 근대인은 [서울시민]으로 별도의 표기없이 사용함을 밝혀둠. 또한 원문을 한글로 번역 소개한 글을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의미전달이 불분명하거나 어색한 부분은 별도의 표시없이 필자가 임의로 수정함.

근대시민사회는 정치로부터 불관용과 광신주의 및 다른 교의적이고 공상적인 종교의 해악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 더 나아가 풍속과 덕을 유지시키려는 필요에서 벗어난 사회질서는 경제적 자유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예술과 자유로운 발전이 보장됨에 따라 지적이고 재능있는 사람들은 높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⁸⁾

일찍이 시민사회는 사유재산의 확립과 더불어 존립 토대를 만들었다. 시민사회에서 분업과 교환관계의 발달은 모든 사람을 시장이라는 틀 속에서 상호의존하도록 만든다. 여기에 그 자체가 분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과 예술의 발달은 모든 야만적인 요소들을 점차 순화시키는 역할을 세련되게 수행한다. 근대 시민사회의 속성을 내포한 대도시로서 서울의 불평등구조는 시장 관계에서 확고히 결정된다.

서울시는 자본주의적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자유와 평등의 도시임과 동시에, 각 계층간에 지배-피지배, 억압-굴종이 뒤섞여 특정분야에서 주어진 지위와 신분의 상승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 좌절과 불평등의 도시이다. 서울은 외면적으로 타 시도에 비교해서 공적인 시민윤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문화의 중심지로서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는 특권을 지닌 도시임과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소음과 공해에 시달려 쾌적한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썩고 악취나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사치와 허영이 팽배한 부패의 집결체로서 사적 이기주의가 지배

8) Jean-Jacques Rousseau, "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 éd., Bernard Gagnebin et Marcel Raymond, Oeuvres complètes, Vol. III(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85), pp. 5-30.

하는 도시이다.

[서울시] 종로2가를 새벽에 가 본 적이 있나요? 아니 종로2가 아니라 어느 곳에든 차분히 **밤의 서울**을 본 적이 있나요. 먹다버린 캔, 구토물 등이 어지러이 널려 있는 가운데 밤귀신들이 새벽에 유령처럼 떠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술집종업원, 실업자, 방황하는 청소년들. 이들은 새벽 5시께 미화원들이 나타나면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어딘가로 숨어 들어가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서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택시 유리창 너머 서울은 지금 무기력하고 자신을 방어해 줄 사람이 없는 모습입니다. 몇 년간 강북 사람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강남, 강북 없이 모두 흔들립니다. 직업이 없어 흔들리고, 타락해 흔들리고. 이게 오늘의 서울입니다.9)

서울시는 낮과 밤이 다르다. 서울시에는 화려하고 세련된 낮의 서울과 추악하고 더러운 밤의 서울이 공존한다. 근대적 대도시로서 서울시가 갖는 모순은 개인적 이해관계와 상호의존에 기초한 근대시민사회의 핵심적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가장 놀랍고도 가장 잔인한 것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작가들은 모두 학문, 예술, 사치, 사업, 법률과 다른 유대들을 우리 세계의 정치적 걸작들로 간주한다. 그것들은 사람들간에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유

9) 박계동, "서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겨레21」 제322호(2000. 8. 24), 38-40쪽. 원문의 강조는 필자의 것임.

대를 강화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상호의존하게 만들고, 공동의 필요를 제공하며, 각자가 자기자신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타인들의 선에 합류하게 만든다. 이러한 생각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즐겁고, 호의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것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처음에 드러내 보이는 장점들을 수정하는 많은 결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이 끊임없이 경계하고 서로의 지위를 강탈하며, 서로를 속이고 배반하며, 과멸시키지 않고는 함께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¹⁰⁾

서울시는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첨단 전진기지로서 화려하고 숨가쁠 정도로 역동적인 '살아있는 도시'이다.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는 역사와 과거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할 책임을 진 상호의존적 존재로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혼탁한 환경에서 슬한 서울시민들이 '죽어가는 도시'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닌 온갖 장점이 [서울시민]에게는 전혀 낯선 존재일 뿐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들을 사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서울시]는 뛰어난 문명의 성취를 자랑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을 불화하고 적대하도록 만든다. 근대

10) Jean-Jacques Rousseau, "Narcisse ou l'amant de lui-même," OC II(1978), pp. 968-69.

에 사는 사람들은 탐욕스런 경쟁적 사회체제의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근대적 대도시, 특히 근대적인 업적으로 칭송하는 학문과 예술이 성행하는 수도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에 달한다.¹¹⁾

이처럼 서울시는 역사적으로 과거와 연속성을 갖고 있는 도시임과 동시에, 중요한 계기마다 급격히 단절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모순에 가까운 이러한 이중성은 서울시민의 의식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서울시라는 모순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서울시민은 모순적인 존재를 벗어날 수 없다. “끊임없이 자기자신과 모순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성향과 자기의 의무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는 결코 사람도, 시민도 될 수 없다.”¹²⁾

서울시민은 과연 누구인가? 서울시민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결론을 내리기 힘든 주제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서울시정 참여의식의 주체이자 시민운동의 주체로서 이해되는 시민의 의미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제는 우리들 ‘보통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
다.—입법이 되고 제도가 바뀌어진 이후에도 과연 운용

11) Jean-Jacques Rousseau, "Projet de constitution pour la Corse," OC III, pp. 911-12.

12) Jean-Jacques Rousseau, "Emile ou de l'éducation," OC IV, pp. 249-50.

이 잘 되는지를 감시할 사람도 바로 시민들입니다. 이러한 건전한 시민행동이 정착될 때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운동이 바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입니다.—우리가 힘을 모으려는 세력은 소외되고 억눌린 민중만이 아닙니다. 선한 뜻을 지닌 가진 자도 이 운동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되고 기필코 민주복지사회로 가야겠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그가 기업인이든 중산층이든 할 것 없이 이 운동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우리가 오늘 이 운동의 주체를 시민이라고 표현할 때는 단지 민중과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깊은 관심의 대상은 19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 때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시민들입니다.¹³⁾

서울시민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폭발력을 지닐 정도로 적극적으로 시민참여의 주역으로 나서기도 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또한 서울시민의 의식에는 전근대적 요소인 봉건적 전통이 혼재되어 있거나 일부 잔존¹⁴⁾하고 있지만, 근대화의 정착과 민주화가 확대되어 가면서 근대적 의미의 시민 의식도 일정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시민윤리도 비교적 확립되어 있는 상태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기취지문: 우리는 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발기하는가?”(1989. 7. 8), 「경실련 창립 1주년 자료집」(1990), 12-14쪽.

14) 송도영 외, 「주민 생애사를 통해 본 20세기 서울 현대사」(서울학연구소, 2000)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대한 의문점도 적지 않다. 서울시민은 대다수가 사적 이기주의에 집착하여 여전히 공적 윤리 혹은 공공 의식이 심각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적 의미에서 말하는 시민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¹⁵⁾

서울시민은 거대한 인구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소외된 존재이다. 서울시민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민들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어도 마치 '욕망을 향해 달리는 전차와 같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현대문명의 장벽에 가로 막혀 대화할 상대와 직접 의사소통할 기회도 여유도 없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에게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지만, 결코 기대하거나 믿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최소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서울시민의 휴식은 일상의 삶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민의 최대 목표는 서울시로부터 탈출이다. 서울시민은 탈(脫)서울을 향한 무서운 집념을 갖고 있다. 서울시민은 아무리 힘든 여행길이라도 서울이라는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해방감을 느낀다. 서울시민의 자유는 서울시로부터 탈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서울시로 재진입하는 순간부터 실종된다. 그러

15) 헤겔은 시민사회를 '욕망의 체계', 즉 개인들의 이익추구활동이 전개되는 곳으로 이해하였다. 헤겔은 사적 이익에 결부되어 있는 '부르조아(bourgeois)'와 시민적 자유를 통해 새로운 규범 질서를 형성해나가는 공적 존재로서 '시민(citoyen)'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지양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로 설정하였다. 그에 앞서 루소는 "근대인은 모두가 부르조아이다"라는 표현처럼, 소외된 존재로서 부르조아를 극복한 시민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시민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만 줄인다.

면서도 서울시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한다.

서울시민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분리, 내부와 외부의 분리는 점차 인간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결국에는 자아의 통합과 진실성을 파괴한다. 서울시민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당위와 존재의 이중성, 현실과 이상의 분리된 삶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총체적 삶을 규정하는 공통된 존재양식이다.

2) 서울의 소외계층과 월드컵의 소외계층

- 노동으로부터 소외 vs. 스포츠로부터 소외

서울의 소외계층은 과연 누구이며, 그 소외계층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한 월드컵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소외계층이 있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문제의 해명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과제로서, 외국 학계에서는 상당한 연구성과의 축적이 있다고 평가되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스포츠사회학에 관심을 갖는 일부 전문가들 외에 거의 연구성과를 찾아볼 수 없는 분야이다. 여기에서는 본 주제의 논의와 연관해서 유익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몇몇 연구성과에 의존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비롯한 스포츠 활동의 부정적 요소들에 관한 주목할 만한 비판은 신마르크스주의자나 신좌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경기란 억압과 소외의 요인으로 해석되고, 자본주의사회에 뿌리박은 가치체계와 행동원칙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즉, 스포츠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극복의 개념을 갖게 하고 소외된 존재에 대한 보상기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상정된다.¹⁶⁾

스포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이들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소외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스포츠를 소외된 노동의 한 전형(典型)이라고 비판하는 신좌파들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1) 노동으로부터 소외 문제

소외(alienation, Entfremdung) 개념의 연원은 분명치 않다.¹⁷⁾ 소외는 근대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초기에 산발적으로 나타났던 상품생산을 향한 경향이 좀더 확고하고 보편화된 발전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¹⁸⁾ 실제로 근

16) 그뤼노, "국가논쟁에서 본 스포츠," 박홍규·정홍익·임현진 공편, 「스포츠사회학」(서울: 나남, 1994), 342쪽.

17) 소외개념은 플로티누스(Plotinus, AD204-270)의 방사이론(doctrine of emanation)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의하면, "분리되지 않은 유일자(one)는 하향과정에서 초감각적인 존재를 낮은 영역의 계층, 궁극적으로는 자연계 및 물질적 존재와 결합시킴으로써 다양한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물질(matter)은 우주의 가장 낮은 단계로서 유일자에 대립되는 것이다." George Lichtheim, "Alienation," David Sh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New York: Macmillan and Free Press, 1968), Vol. I, p. 264.

18) Fritz Pappenheim, *Alienation and Society*, 파펜하임, 「소외와 현대」(백범사상연구소, 1974); 정문길, 「소외론 연구」(서울: 문

대시민사회의 형성은 종교적 속박이나 절대주의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으나 그 내면에 심각한 인간소외를 배태하여,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의 분리 문제 등 심각한 이율배반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사회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비판이 근대적 소외개념의 형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¹⁹⁾

근대사회에 나타나는 소외의 문제는 루소(J.-J. Rousseau), 헤겔(G. F. Hegel), 포이엘바하(Feuerbach) 등을 거쳐 마르크스(K. Marx)에 이르러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된다. 그보다 앞선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에 있어서도 소외의 개념은 실존과 본질 사이의 괴리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인간의 실존이 인간의 본질로부터 소원해졌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인간은 가능하고 잠재적인 자신의 모습을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하여, 마땅히 있어야 할 인간의 모습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인류의 점증하는 발전의 역사이며, 동시에 증대하는 소외의 역사이다.²⁰⁾ 따라서 진정한 자아의 실현은 소외의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소외란 인간이 세계를 파악하는데 자신을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체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자연, 인간 이외의 다른 것, 인간 자신)가 인간에게 낯선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는 비록 그것이 인간 자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대상으로 존재하여, 인간과 대립하며 인간의

학과 지성사, 1978), 18쪽에서 인용.

19) 정문길, 「소외론 연구」, 23쪽.

20) Erich Fromm, *Marx's Concept of Man*(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61), p. 43; 김창호 역, 「마르크스의 인간관」(서울: 동녘, 1983), 56쪽.

위에 있게 되는 세계이다. 이처럼 소외는 주관(subject)과 객관(object)이 분리된 상태에서 세계와 인간 자신을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경험함을 뜻한다.²¹⁾

마르크스는 소외와 물화(物化, reification)의 필연적 지양에 관한 분석을 통해 소외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²²⁾ 마르크스가 고찰한 소외의 과정과 소외의 극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소외의 과정은 노동과 노동의 분화(division of labor)에서 드러난다. 노동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연에 관계하는 것이며, 인간 자신의 창조를 포함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서 인간의 실존적 활동이자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으로서 인간의 보편적 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즉, 노동은 인간적 자유의 현실적 표현이며, 인간은 노동 가운데서 자유롭고, 노동의 대상 가운데서 자유로운 자신을 현실화하게 된다.

21) 「마르크스의 인간관」, 56쪽. 소외의 본질이 주체와 객체 사이의 분리라는 점에서 Schacht는 마르크스의 소외 의미를 양도를 통한 분리(separation through surrender)라고 정의하고 있다. Richard Schacht, *Alienation*(Garden City, N. Y.: Doubleday & Company, 1970), p. 111. 한편 Ollman은 양도의 의미를 강조함이 없이 소외를 유기적 전체(organic whole)로부터 분리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Rader는 양도보다 분리가 소외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보고 있다. Melvin Rader, *Marx's Interpretation of Histor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p. 102-103.

22) I. 메자로스, “마르크스 소외이론의 개념구조,” 김호기 엮음, 「마르크스주의 소외론 연구-독점자본주의와 노동의 소외」(서울: 청아, 1986), 39-69쪽.

그러나 이러한 성격을 지닌 노동이 사유재산과 노동의 분화가 확립됨에 따라 점차 소외된 양상을 띠게 된다. 그 결과 소외된 노동은 노동생산물로부터 노동생산자의 소외, 생산활동 곧 노동 자체로부터 노동자의 소외, 유적 존재(species being)로부터 인간의 소외,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소외 양태로 중첩되어 나타난다.

인간의 소외를 야기시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인간활동의 소산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만든 역사의 소산으로 되었다. 사회적 현실은 인간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인간의 창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자본주의사회의 전반적 소외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사회는 인간에게 낯선, 적대적인 세력이 되어 버렸다. 마르크스는 소외된 노동을 자본주의적 사회현실 자체와 동일하게 인식한다.²³⁾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은 자본주의와 그 전형적인 노동형태로서 임금노동(wage-labor)에 대한 비판을 예시해 준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이 유일한 방식, 곧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든다. 노동자는 자본가라는 타인의 통제 속으로 자신의 노동능력을 이전시킴으로써 자본가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한다.

노동은 더 이상 생활의 자유로운 표현양식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본에 의해 왜곡되고 통제된 강제적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노동은 단순한 생활수단이 되어 버리고,

23) 차인석, “마르크스에 있어서 인식과 실천,”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와 인식」 (서울: 민음사, 1984), 199-200쪽.

화폐라고 하는 물화된 형태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노동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결국 자본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협동과 경쟁, 이론과 실천 간의 분리를 통해 인간 생활을 단절시키며, 자본주의사회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모든 대립과 모순을 야기시킨다.

마르크스는 근대사회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노동과정에서 자유를 상실한 채 소외된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이성과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다.²⁴⁾ 또한 소외의 원인과 소외과정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해결 조건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즉, 소외의 극복과 해결은 노동으로부터 자본의 억압을 제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으로부터 노동을 해방시키는 일을 인간생활의 부분적인 해방이 아닌 전면적이고 완전한 해방으로 간주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노동이 인간의 본질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한, 노동해방은 인간생활의 전체적 해방, 모든 소외된 양식들의 지양(止揚, *Aufhebung*)을 뜻한다.²⁵⁾

24) H. Marcuse, *Reason and Revolution: Hegel & the Rise of Social Theory*(Boston: Beacon Press, 1964), p. 273.

25) W. J. 모오건(William Morgan), "올림픽리즘과 스포츠생활: 그 사회철학적 비판(Olympism and the Sporting Life: A Socio-Philosophical Critique)," 제프리 시그레이브·도널드 추편저, 정성태·김창규 공역, 「올림픽의 사회학」(서울: 중앙일보사, 1984), 394쪽.

(2) 스포츠로부터 소외 문제²⁶⁾

가. 신마르크스주의자들(Neo-Marxists)의 스포츠 비판

스포츠에 대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은 마르크스의 소외된 노동개념을 준용한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는 소외된 노동의 부수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자본주의사회의 규범이나 성취 성향을 받아들여 모방한다. 즉, 스포츠는 자본의 거짓된 세계관을 합리화시키는 소외장치(mechanism)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포츠는 소외된 노동을 합리화시키고, 운동선수의 열망을 상품사회의 열망과 동일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욱이 스포츠는 자본의 강제적 성취 원칙을 가장 적나라하게 예증해 보이고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 성취 원칙은 하나의 추상성, 즉 순수한 노동세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성취 행동규범들의 순수한 공상적 구조이다. 스포츠 성취원칙은 자본주의적 성취행위의 순수한 본질과 그 표준화 및 가치평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성취행위에 대한 엄격한 측정이 가능하고, 누구나 그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²⁷⁾

26) 이하의 논의는 주로 W. J. 모오건, "올림픽즘과 스포츠생활: 그 사회철학적 비판," 「올림픽의 사회학」, 395-404쪽을 참조한 것이다.

27) 렌크가 크로코브(Krockow)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H. Lenk, *Social Philosophy of Athletics*(Champaign, IL: Stipes, 1979), p. 66; 「올림픽의 사회학」, 395쪽 인용.

자본의 전제적(專制的) 수행원칙을 구현하는 이상적 모델로서 스포츠는 혁명에너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열적인 힘들'을 무마하는 잠재적인 사회통제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스포츠는 자본주의사회의 개념들이나 자본의 가치에 일치하는 인간행동의 가치들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

모든 상상 가능한 면에서 보아, 스포츠는 '기술적 정신'의 연장이다... 시민들은 스포츠 안에서 자본주의 기술사회와 똑같은 정신, 준거, 도덕, 행동, 목표 따위, 즉 시민들이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부딪히는 것과 똑같은 모든 기술적 법규와 관습을 배우게 된다.²⁸⁾

호크(Hoch)는 이러한 주장을 더욱 확대시켜,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다"라는 마르크스의 표어를 스포츠에 적용한다.²⁹⁾ 첫째, 스포츠는 대중의 관심을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호크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단결을 잠식하기 위한 스포츠의 이용을 비판한다. 둘째, 대중은 스포츠를 상품사회의 허구적이고 소외된 관계에 대한 대용물로서 외견상 동일시하게 된다. 이러한 동일시는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소외된 노동의 단순한 모방에 불과한 때에는 그럴 듯해 보인다. 아편의 비유는 경기에도 쉽게 전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용은 올림픽경기가 '이상적인 성취 모델' 개념과 사회적으로 뚜렷한 국제적 수준의 행동 사이에 공감대를 제공하는 한에

28) J.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 J. Wilkinson trans.(New York: Vintage Books, 1964), p. 384; 「올림픽의 사회학」, 395-96쪽 인용.

29) P. Hoch, *Rip off the big game*(New York: Doubleday, 1972) 참조.

있어서는 용이하다.³⁰⁾

브롬(Brohm)은 올림픽경기의 사회적 실재와 공식상의 이념적 장식들은 참다운 현실을 정치·사회적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올림픽경기란 웅장하고 공정한 운동제전이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브롬은 그러한 주장은 올림픽경기에 만연해 있는 계급갈등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이라고 간주한다. 더 나아가 올림픽경기가 국제적으로 매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본가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데 극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에 의하면, 스포츠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사회의 억압적 성취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수행원칙의 구현 혹은 반영효과(mirroring effect)는 그 규모상 올림픽경기와 같이 자본주의적 착취가 용이한 국제적인 스포츠제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스포츠의 병리에 대한 신좌파의 접근 방식은 해결조건도 제시해 주는데, 그 해결책은 자본주의의 속박으로부터 스포츠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

스포츠를 비판하는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렌크(Lenk)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30) 이러한 맥락에서 브롬(Brohm)은 자신의 저서에서, 올림픽 경기를 가리켜 ‘올림픽 아편’(Olympic Opiate)이라고 불렀다. J. M. Brohm. *Sport: A Prison of Measured Time*, J. Fraser trans.(London: Ink Links, 1978) 참조.

강제적인 모델 아래 포함된다”고 하는 인간의 성취행동에 대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해석을 비판한다. 렌크의 분석에 의하면, 스포츠에는 소외된 노동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성취행동의 의미들이 있다.

더 나아가 모오건은 스포츠, 혹은 의미상으로 보아 올림픽 경기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성취행동은 노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이므로 그것을 소외된 노동에 포함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스포츠는 하나의 전형적인 활동이긴 하지만 목적이 정해진 행동과는 정반대의 형태를 띠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모오건이 주장하는 주된 명제란 바로 스포츠는 동화시키는 힘과는 반대되는 초월적인 힘을 나타내며, 임금노동의 압제적인 수행원칙을 구체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를 논증하기 위해 모오건은 노동의 실천(praxis of labor)과 스포츠의 실천(praxis of sports)을 비교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설명에서 보듯이, 자본이 노동자에게 받아들여져 노동자와 일체감을 갖도록 강요하는 노동의 수행원칙은 ‘삶을 꾸러가기 위한’ 필연적 강제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성취(achievement)라는 말은 자본의 축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원의 사용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소외된 노동에서 구현된 강제적 성취모델이라 할 수 있다.³¹⁾

31) 상세한 논의는 「올림픽의 사회학」, 399쪽을 참조하라.

모오건은 스포츠에 있어서 성취 정향(achievement orientation)은 노동의 성취모델과는 전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정반대의 모델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 정반대라는 말은 노동과는 대조적으로 스포츠에서는 '가능성'(possibility)이 필요의 기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스포츠는 노동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고안한 것이지만, 그것은 근본적 필요들의 요구에 따라 고안된 것이 아니다. '스포츠에서 필요'란 단지 인위적으로 만든 가능성인 반면, '노동에서 필요'란 인위적으로 만든 가능성이 아니다.

스포츠 규칙 제정에 대한 슈트(Suit)의 설명은 양자의 차이점을 잘 나타내준다.³²⁾ 즉 스포츠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유용한 수단이 배제되어 있다. 실용적인 규칙과는 달리 스포츠 규칙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뚜렷한 제한을 가한다. 요컨대, 경기규칙은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의미있는 제한들을 부여한다.

...경기가 아닌 다른 일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장애물을 이유없이 끌어들이는다면 대단히 비합리적이라고 간주된다. 반면에, 게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³³⁾

스포츠의 경기수행(game-playing)은 경기참가자들이 고의로 자신의 진로에 장애물을 부여하는 따위의 특이한 합리성을 구현

32) B. Suit, "The Elements of Sports," R. G. Osterhoudt ed., *The Philosophy of Sport: A Collection of Original Essays*(Springfield, IL, 1973) 참조.

33) Suit, "The Elements of Sports"; 「올림픽의 사회학」, 401쪽 인용.

한다. 경기수행자는 공인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좀더 좋은 수단보다는 나쁜 수단을 채택한다. 스포츠에서 다른 방식으로는 가질 수 없었을 가능성의 순간을 창조하거나 경험하는 것은 좀더 나쁜 수단의 채택에 의한 것이다. 더욱이 스포츠의 규칙들이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엄밀히 말해 그러한 가능성의 순간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주기 때문이다. 규칙으로 정해진 대로 경기참여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경기가 아닌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제한과는 전적으로 다른 종류이다.

모오건에 의하면, 규칙에 따라 지배되는 스포츠의 성취행동은 노동의 성취행동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양자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성취모델을 갖고 있다. 스포츠에서 성취는 인공적으로 고안된 필요성, 즉 규칙들에 따라 정해진 행동 가능성을 추구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에 노동에서 성취는 기본적인 생활상의 필요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채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구성하는 규칙은 실용적인 규칙이나 그것과 관련있는 합리적 노동체계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독자적인 행동체계를 규정한다.

스포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포츠에 참가한다는 것은 최소 조건으로서 경기의 목적과 삶의 다른 목적들간에 서로 다른 상태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도록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스포츠경기는 존재할 수 없다.³⁴⁾

34) 그러나 모오건에 의하면, 스포츠관계자들은 종종 스포츠 활동과 다른 인간활동 간의 구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참여가 좌우되는 중요한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경기와 자본사이의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에 관계된 것이며, 다른 목적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요구들을 강요한다. 경기는 덜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목적을 추구하도록 요구되는 반면, 자본은 최대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실제적인 목적을 추구하도록 요구된다. 스포츠 영역내로 자본의 목적이나 자본의 전략적 행동원칙이 전면적으로 침투하게 된다면 스포츠는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경기의 목적과 자본의 목적을 부당하게 결합시켰기 때문에, 경기와 자본의 불합리한 결합이 내포하는 의미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왜냐하면, 스포츠와 소외된 노동을 동일한 것으로 다룸으로써,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존 사회의 성취 기준과 가치를 내재적으로 부정하는 스포츠의 '혁명적인' 의미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만약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스포츠를 제거하게 되면, 자본은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른바 혁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를 통제하는 일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변화의 수단으로서 스포츠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자본의 통제능력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사태가 되면 '의미있는' 변화의 가망은 더욱 불확실해지게 된다.

관계자들의 좀더 비판적인 자기 성찰과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모오건의 주장에 의하면, 스포츠는 노동과는 정반대의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부정으로서 존재한다. 더 나아가 스포츠는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에서 득세하는 성취이데올로기를 모방하기보다 사실상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스포츠는 자본의 수행원칙을 타파함으로써 노동수행의 논리에 대항하는 새로운 내재적 성취논리를 확립한다. 그러므로 경기자가 스포츠활동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허구적인 '의식적 동일시'(counter-conscious identification)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모오건에 의하면, 스포츠에 대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다른 성취 행동양식을 갖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별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의 스포츠 비판은 설득력을 잃게 되고 대안제시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올림픽경기를 노동계급의 정치적 세계관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케 하는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개혁프로그램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때로는 현존하는 폐해를 유지시키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오건은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재의 스포츠세계와 중요한 스포츠행사로써 올림픽경기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제기와 비판을 외면하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스포츠와 그에 관련된 영역에서 의미있고 건설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현대인의 의식과 경험이 갖는 복합적 요소들을 망라하여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철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현대스포츠 활동이 지닌 이중성: '자발적 필요'와 '강요된 필요'의 혼합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노동으로부터 소외문제와 스포츠로부터 소외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논의하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서울의 소외계층 형성원인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문제 해명과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의 소외계층이 마르크스가 분석한 자본주의사회의 프롤레타리아계급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분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더욱이 추상적인 개념에 기초한 마르크스의 소외극복책을 서울의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지만, 앞에서 고찰한 서울시민의 일부로서 노동으로부터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를 위해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현대 스포츠로부터 소외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스포츠로부터 소외 문제를 다룬 모오건의 글은 여러 모로 의미를 지닌다. 올림픽이라는 국제스포츠 경기를 통하여 나타난 사회철학적 문제점을 상이한 관점에서 폭넓게 검토한 모오건의 분석에는 현대스포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참고할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모오건의 주장에도 문제점은 있다. 즉, 스포츠와 소외된 노동의 성취모델을 구분하는 기준과 스포츠경기와 자본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스포츠가 노동과 정반대의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혁명적 의미를 지닌 스포츠가 노동의 부정으로서 존재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실제로 모오건이 지적한 것처럼, 올림픽즘에 대한 철학이나 올림픽 운동이 갖고 있는 근본원칙보다는, 현존하는 올림픽 경기의 사회적 실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올림픽 경기가 현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두드러진 스포츠 생활의 전형(典型)들으로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한편으로 스포츠에 고유한 목적과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외된 노동의 연장으로써 참여하는 것도 현실이다. 전자에 관한 설명은 모오건의 분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스포츠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 혹은 자아완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자발적 필요'에 의해 스포츠 경기자들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분석대로 소외된 노동의 연장으로써 '강요된 필요'에 의해 스포츠 경기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문제의 원인을 TV 중계를 비롯한 상업주의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흔히 비판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사회에서 스포츠 경기자들은 참여결과에 따라 부와 명성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직접적인 금전 혜택 대신 지위의 상승 등 간접적인 혜택이 적지 않다. 더욱이 경제수준이 높은 선진국 뿐 아니라, 최빈곤상태에 처한 제3세계 국가에서조차도 국제스포츠 경기 입상자들에게는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다.³⁵⁾

요컨대 스포츠 경기참여자는 스포츠를 통한 국가의 위신과 개인의 명예라는 추상적인 가치 외에도 물질적 보상이라는 현실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 권위주의체제나 국가 주도의 스포츠 활동에서는 더욱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면 스포츠,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 스포츠 경기를 통해 참여하는 경기자들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육체활동으로서 스포츠'와 '소외된 노동의 연장으로서 스포츠'가 복합된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가대항전 뿐 아니라,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월드컵은 올림픽 이상으로 국가대항전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현대적 스포츠 활동이 가진 최선의 특징들과 최악의 특징들을 동시에 표현하는 중요한 사례다.

월드컵은 20세기에 처음 개최된 이래 참여의 폭이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물론 월드컵의 개최지 선정문제를 비롯한 참여의 형식과 참여의 범위, 올림픽과 같은 다른 스포츠 활동과의 조화문제 등과 맞물려 어느 정도 변화와 개

35) 스포츠경기자들이 경쟁에서 승리로 인한 금전적 보상 등이 갖는 도덕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Robert L. Simon, *Sport and Social Values*; 김남영 외 공역, 「스포츠와 가치」(서울: 태근, 1995), 107-40쪽을 참조하라.

력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국제스포츠경기로서 월드컵이 갖는 의의와 기본 취지 및 경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월드컵을 유치한 국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월드컵 개최를 통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월드컵 개최로 인한 폐단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다.

3) 월드컵 성공을 위한 사회문화적 결정요인

월드컵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특이한 사실은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경기행사는 개최국 선정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있을 정도로, 월드컵 유치 여부를 둘러싸고 성공과 실패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 월드컵의 성공을 논의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기간에만 유용한 평가 기준일 뿐이고, 시각을 확대하여 어느 정도 설득력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월드컵 성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례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대항 국제스포츠경기로서 월드컵을 규정할 경우, 월드컵의 성공은 일차적으로 우승, 준우승과 같은 최종 경기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면, 최종 경기에 진출한 극소수의 국가만이 성공한 반면, 대다수 국가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일찍이 올림픽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기

준에 관한 논의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한 번씩 치뤄지는 올림픽은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되지만, 사실상 국가대항전의 성격을 띠는 면이 큰 만큼 국제스포츠 활동의 성공과 연관된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경쟁적 스포츠 영역과 그 영향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올림픽 경기는 여러 가지 주요한 사회적 힘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졌다. E. F. 지글러는 근대올림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에 주목하여, 올림픽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힘들인 가치, 정치, 민족주의, 경제, 교육의 영향을 분석하였다.³⁶⁾

지글러에 의하면, 경쟁적 스포츠 경험이 사회에 대해 유익한 기능으로 작용한다고 믿는다면, 스포츠 경기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부합하여 수행되도록 보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 가치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로 구분된다. 또한 한 사회의 규범을 결정짓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개인이 윤리적으로 옳으나 그르냐를 판단하는 표준을 결정짓는 개인적 가치가 올림픽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글러가 주장하는 가치는 미국의 사례에 타당한 분석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스포츠 활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의 관점은 올림픽 이상에 관한 것으로부터 올림픽의 성공과 관련된 정치,

36) 지글러, “근대올림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세력과 직업적 요인들,” 「올림픽의 사회학」, 359-67쪽.

경제적인 요인의 분석으로 옮겨가고 있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올림픽에서 나라마다 서로 다른 성공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국제스포츠 경기에서 ISS(International Sporting Success)의 준거틀에 입각하여 나라마다 서로 다른 성공요인을 분석한 콜웰(Jane Colwell)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⁷⁾ 콜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ISS를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못지 않게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다.

경제적 요인은 ISS에 대한 잠재적, 실제적인 주요 결정요소이다. 한 국가가 ISS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뿐만 아니라 시설개발을 위한 자원, 지도자와 선수의 트레이닝, 장비와 스포츠 의학의 발달에 필요한 기술, 국제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 자원들만으로는 모든 변수를 설명하는 것이 불충분하다. 국가의 정치제도는 이러한 자원들 중 일부를 스포츠에 배분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은 스포츠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결정하는 틀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정치적 요인은 ISS를 위한 자원의 배분과 배분된 자원의 방향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한 국가의 정치체제가 지닌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 즉 체제의 안정성, 이데올로기의 영향, 권력구조, 정책결정과정, 정책의 우선순위 등은 스포츠 발전을 위한 자원의 배분과 동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37) 이하의 논의는 콜웰, “올림픽에서 성공을 위한 사회문화적 결정요인,” 「올림픽의 사회학」, 285-304를 주로 참고하였다.

경제적, 정치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적 요인들이 이용가능한 잠재적 인적 자원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요인은 ISS에 대한 각 나라의 차이를 좀더 분명히 설명해 준다. ISS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우수선수의 육성에 관련된 모든 인적, 물적 요인인 국민의 기회체계(opportunity set) 확대를 통해 트레이닝에 필요한 기회 부여가 중요하다. 우수한 수준으로 선수를 훈련시키거나 그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열의를 국민들이 갖지 않고서는, 어떤 나라도 국제적 수준의 운동경기에서 성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콜웰은 종래 의미있는 변수로 취급되지 않은 사회적 차원은 ISS의 결정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면서, 세가지 주요 명제를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이용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제스포츠에서 성공가능성은 커진다. 둘째, 스포츠 정책이 직접적으로, 신속히 시행되면 될수록, 자원의 동원효율과 국제스포츠에서 성공가능성은 커진다. 셋째, 전체 국민에 의한 스포츠 참여 기회체계의 이용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이용가능 자원의 배분과 동원의 효율성은 높아진다.³⁸⁾

콜웰의 연구는 국제스포츠경기의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들에 관해 유용한 분석이다. 이같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스포츠 영역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간에 스포츠 진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8) 콜웰이 주장하는 ISS 가능성의 사회문화적 결정요인들의 상호관계는 알기쉬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올림픽의 사회학」, 301쪽 그림 3 참조.

그러나 콜웰의 분석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국가적 자원의 배분에 관한 문제로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어떤 국가에서도 국민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스포츠 정책을 우선과제로 언급할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스포츠는 국민의 절실한 필요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스포츠에 대한 참여가 갖는 의미와도 연관된 문제로서, 스포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기자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관람객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더 나아가 스포츠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 혹은 국가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는 로이(John Loy)에 의해 이루어졌다.³⁹⁾ 로이에 의하면, 문명의 역사를 통하여 스포츠에 대한 열광이 그리스의 황금시대 이후 서양에서는 이른바 '발달한 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문화현상이 되어왔다. 특히 인간의 스포츠 참여는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형태보다도 주로 관람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스포츠 관람이 사회적 현상의 중요한 모습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역사가, 운동 생리학자, 스포츠 사회학자들은 스포츠 관람의 원인과 효과, 영향과 결과, 기능과 역기능 등을

39) 이하의 논의는 J. 로이, "스포츠 관람 이론: 올림픽 경기와 관련하여," 「올림픽의 사회학」, 305-41쪽을 주로 참고하였다.

분석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스포츠 관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다. 예컨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에 막대한 중계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TV매체 관계자는 스포츠 관람 현상에 주목하여 상업화 시킨 선구자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로이는 올림픽 경기에 대한 관중의 호응을 사회심리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모델을 사용하는데 적절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로이는 스포츠의 대중적 호응에 대한 두가지 가정(hypothesis)을 제시한다. 첫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광범위하며 강하게 존재하게 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둘째, 사람들은 스포츠의 참여에 많은 양의 시간과 돈 및 심리적 에너지를 투자한다.

이러한 가정은 스포츠 관람 행위이론에서부터 해답을 얻어야 하는 두가지 중요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즉, 스포츠에 대한 엄청난 관심, 전세계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에 나타나는 관심은 무엇 때문이며, 스포츠 참여의 결과로 개인이나 집단은 무엇을 보상받는가 하는 문제이다. 에드워드(Edwards)의 글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열광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은 사회제도로서 스포츠가 갖는 기능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주로 사회화와 가치유지 기능을 가진 사회제도로서 스포츠는 팬들에게 기존의 가치관이나 신념 및 일상 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특별한 가치의 형태들은 스포츠 활동의 어떤 본질적 특성들을 통해 표현된다.—스포츠 활동은 불확실성의 정도와 전체적인 통제의 부족으로 특징지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외적인 행위들을 포함하며 위신, 권위, 자기만족, 그 밖의 사회적인 포상 등과 같은 희소가치들을 얻기 위한 경쟁을 포함한다.⁴⁰⁾

스포츠활동의 본질적 특성이란 스포츠가 문화나 사회의 반영으로서 제공되는 표현활동의 부류이며, 스포츠 활동에서 흥미와 개인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기본 요소들을 가리킨다. 스포츠는 다분히 놀이적인 경기의 특수한 형태로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나 경기를 보는 사람 모두에게 스스로 우러나오는 흥미를 자아내게 한다. 스포츠의 이러한 특성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참여자들을 유인하며,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인다.

스포츠가 흥미를 끄는 근본적 요인은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과 과시가 허용되기 때문이다.⁴¹⁾ 스포츠의 알 수 없는 결과는 경기자나 관찰자를 모두 몰두하게 만들어 경기에 대한 긴장과 흥분을 돋구게 된다. 또한 스포츠에서 허용된 과시는 선수들에게 널리 가치를 인정받는 민첩성, 힘, 지혜, 지식, 용기, 자기제어와 같은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람자들에게는 기술적 표현, 위험을 안고 도덕적인 것을 시험하는 선수들의 행위에 간접적으로 동일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이몬(Robert L. Simon)은 경기를 통하여 선수와 관람자간에 공유하는 스포츠의

40) H. Edwards, *Sociology of Sport*(Homewood, IL: Dorsey Press, 1973); 「올림픽의 사회학」, 307쪽 인용.

41) E. Goffman, *Encounters*(Indianapolis: Bobbs-Merrill, 1961), pp. 66-79.; 「올림픽의 사회학」, 309쪽 참조.

내재적 가치는 뛰어난 예술가나 음악가와 관객들 사이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스포츠는 내재적인 가치들이 있다.—스포츠에 은연 중에 내포된 우수성의 표준에 대한 순응이 전체 사회에 유용한 내재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상 선수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빼앗고 있는게 아니라 다른 삶들에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예술가나 음악가와 작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소수 운동선수들에 대한 강조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빼앗는 것처럼 생각하기보다는 관중들이 유능한 선수들에 의해 창출된 내재적 가치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듯할 것이다.⁴²⁾

기어츠(Geertz)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포츠는 '문화체계로서 스포츠'로 정의될 수 있다. 관념적인 의미로서 스포츠는 '심오한 유희'로서 예술의 한 형태이며 사회적 의식이다. 심오한 유희로서 스포츠는 신성한 것으로 인지되고 강요되는 도덕적 상징이다. 문화적 구성물로서, 예술의 형태로서, 사회적인 의식으로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사회적 중요성은 프롬(Fromm)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술 이외에, 틀에 박힌 과정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생(生의) 궁극적인 본질에 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의식'(ritual)이라 불리우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의식은 넓은

42) 「스포츠와 가치」, 129-30쪽.

의미에서다. 이러한 의식은 예를 들어 희랍의 연극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종교적인 좁은 의미의 의식만은 아니다. 희랍의 극, 중세의 열정적 연극 혹은 인디안의 춤을 생각하거나 혹은 힌두교, 유대교나 기독교 의식을 생각하더라도 여기서 우리는 인간 생존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극화되어 철학이나 신학에서 사색되는 문제들이 연기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문화에서 이러한 인생의 극화가 남아 있는 것이 있을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 인간이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관습과 문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며 일상적 관습을 깨뜨리지 못하고 기껏해야 기숙사 등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필요성이나 만족하려 하는 것 뿐이다. 의식의 의미에 접근하려는 단 하나 남은 현상이란 투기적 경기에 참가하여 관람하는 것이다.⁴³⁾

로이는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라는 문화적 영웅제도(cultural hero system)는 아동이나 성인, 선수나 관중 모두에게 자존심을 유지시켜주며 불멸성을 추구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현대 대중사회의 의식화된 행위체계라고 주장한다.⁴⁴⁾ 더 나아가 스포츠는 현대 대중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로이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의식화가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 추구하고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스포츠가 사회성원의 지위를 어떻게 극화(劇化)하는가를 고찰한

43) E. Fromm, *The Sane Society*(New York: Fawcett World Library, 1965), pp. 131-32.; 「올림픽의 사회학」, 311쪽 인용.

44) 로이, “스포츠 관람 이론,” 319쪽.

다. 로이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배경에 관한 휴이트(Hewitt)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스포츠 관람이 어떻게 정체성을 위한 집단적인 노력과 관련이 있는가를 고찰한다.

자기구축이란 중요한 여러 문제에 답하기 위한 개인과 다른 성원들의 시도라고 간주될 수 있다. 사람은 묻는다. "나는 무엇인가?" 이것에 의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전면적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을 규정짓는 일련의 자질을 식별하려 한다. 그는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의해 그는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질 뿐 아니라 인정받고 명령된 사회적 지위에 동일시를 주장하게 된다.—마지막으로 그는 묻는다. "나는 바람직한 사람인가?" 이것은 자존심, 즉 자기주체성과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있게 평가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⁴⁵⁾

스포츠와 관련하여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는 아주 훌륭한 '인생의 극화'를 나타내주고 있다. 매컬룬(MacAloon)에 의해 잘 묘사되었듯이, 올림픽 경기는 볼 만하며, 축제적이며, 의식적, 게임적, 극적인 요소들의 강력한 결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올림픽 경기는 고양된 형태 즉 일상생활의 압박이 어느 정도 경감되고, 현대의 공업화된 사회 속에서 발견되는 종교적 정열과 열광이 내재되어 있는 어느 정도 제도화된 행사들의 한 유형으로 나타난다.⁴⁶⁾ 그러나 매4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는 구경거리의 창출이라는

45) Hewitt의 글; 「올림픽의 사회학」, 312쪽 인용.

46) N. Elias & E. Dunning, "The Quest for Excitement in Unexciting Societies," G. Luschen ed. *The Cross-cultural Analysis of Sport and Games*(Champaign, Illinois: Stipes,

측면과 의식의 제정이라는 측면 사이의 균형유지를 위한 진퇴양난의 문제에 직면한다.

올림픽경기의 구경거리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은 스포츠의 수단적인 측면과 표현적인 측면을 묘사한다. 양자 중 어느 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불분명한 문제이다. 표현적인 측면에서 스포츠는 절정감의 간헐적 체험과 일상생활의 모든 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게 해준다.⁴⁷⁾ 가장 수단적인 측면에서 올림픽경기는 대중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대한 상업적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균형유지라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1980년 하계올림픽 경기의 보이콧을 둘러싼 논쟁에서 루크(Lukes)의 견해⁴⁸⁾처럼, 올림픽경기는 정치적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정치적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올림픽경기는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고결한 가치, 신념, 의례 및 경기규칙들의 체계다.

로이는 올림픽경기의 관람 욕구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해석은 올림픽경기가 정치적 의식의 한 형태이며, 이 의식은 사회통합과

1970).; 「올림픽의 사회학」, 319쪽.

47) 노박은 이러한 경험을 성시(sacred time)이라 칭하고, 이 때에는 마치 일상생활의 활동들보다 더 진실되고, 더 유쾌한 듯한 평화와 열광과 상쾌함을 느끼며, 상대적으로 날마다 반복되는 일의 고역으로부터 고통을 덜게 된다고 한다. M. Novak, *The Joy of Sports*(New York: Basic Books, 1976).; 「올림픽의 사회학」, 320쪽 참조.

48) S. Lukes, *Essays in Social Theory*(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올림픽의 사회학」, 320쪽 참조.

관련을 맺고 있다는 가설에 기초하여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의 초점은 각 사회의 정치제도 자체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격(personality) 체계 위에 두고 있다.

로이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올림픽경기의 축제적 성격은 사회적 주체성을 발달시키는 작용을 하는 집단들간의 사회적, 의식적 경쟁의 여러 형태들을 제공하여 준다.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묘기를 봄으로써 얻는 대리성공은 개인의 자존심 수준을 상승시켜주며, 승리와 성공에 대한 집단적 축제 속에서 소수에 대한 다수의 동일시를 가져온다.

이러한 유형이 간혹 인간 활동의 다른 분야에서 보일 수 있더라도, 그것이 스포츠에서처럼 그렇게 지나칠 정도이거나 감동적이지 못하다. 스포츠에서는 지적인 감상이 더 적게 관계되며, 운동선수들을 통한 직접적인 집단간 경쟁이 가장 위협적으로 승리 또는 패배를 결정한다.⁴⁹⁾ 또한 스포츠에서 올림픽메달 수여와 같은 포상은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포상은 일시적인 명성 대신 공식적으로 명예를 부여받기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개인은 물론 집단의 사회적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로이는 스포츠 관람이론을 통하여 스포츠 참여가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주체성과 연관된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는 스포츠 참여로 인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확립에

49) J. M. Schwartz, "Causes and Effects of Spectator Sports,"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Sociology*, 1973, 8, pp. 25-45.; 「올림픽의 사회학」, 332쪽 참조.

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남는다는 지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⁵⁰⁾

—인간 존재의 허구적인 본질성이 충분히 드러난다면, 어떻게 「다른 모든 허구적인 문화적 영웅제도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신화적 영웅제도가 아닌」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아마 개인의 자존심 유지와 불멸성을 위한 모든 노력의 유일한 원천은 스포츠 영웅들을 그들의 업적에 대해 기념하는 것이리라. 그리고 현대의 세속적인 사회에서 올림픽 경기는 사회주의자이건, 자본주의자이건 간에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종교적 영웅제도일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이러한 허구적 축제들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될텐데, 그것은 다름아닌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의 손실이다. 스포츠라는 하나의 문화적 영웅제도 속에서 자신들의 동일체감을 찾으려 한다거나 가치있는 존재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각 개인들은 베버(Weber)가 예언적으로 묘사한 생활의 관료주의적 철장과 다를 바 없는 놀이의 철장(the steel cage of play)에 갇히게 될 것⁵¹⁾이다.

올림픽경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로이의 스포츠관람이론은 월드컵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만 현 시점에서 검토하자면,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0) 로이, "스포츠 관람 이론," 339쪽.

51) A. Mitzman, *The Iron Cage*(New York: Grosset & Dunlap, 1969); 「올림픽의 사회학」, 339쪽 참조.

스포츠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경기관계자 뿐 아니라, 관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경기관계자들은 경기결과에 따른 포상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만, 시민이 얻는 보상 혹은 대가는 심리적 만족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다면 국가가 스포츠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사회통합과 같은 가치의 소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⁵²⁾

앞에서 본 것처럼, 현대 대중사회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공허함은 쉽게 치유되기 힘들 정도로 점차 증대해왔다. 현대인이 느끼는 자기 위축 혹은 자아의 왜소해짐은 현대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근대적인 농촌생활에서만 아니라, 현대적인 대도시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필연적인 운명의 선택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이러한 '소외된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아실현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종교와 전쟁은 개인과 집단의 자기팽창 욕구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른바 '영웅의 시대'는 고대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되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 '전능한 존재'를 꿈꾸고 전쟁을 통해 '초인간적인 존재'로 상승하는 계기로 삼아 왔다. 그러나 근대 이후 종교는 더 이상 세속적 지배영역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수많은 전쟁의 경험은 '정

52) 본문에서 소개한 로이의 주장 외에 스포츠 관람과 연관된 쟁점들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있는 라쉬, "스포츠의 타락," 박홍규 외, 「스포츠사회학」, 149-76쪽을 참조하라.

의의 전쟁' 조차 최소한의 평화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

현대에 들어와 새로운 영웅의 탄생 영역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대중문화(mass culture)의 '스타'(star)로 상징되고 있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중동원을 위한 정치적 상징조작의 성격을 띠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그 자체가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거대한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는 것과 함께,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스타는 '문화적 영웅'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스포츠는 그 역사적 기원을 살펴 볼 때, 대중문화의 성격보다는 귀족문화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스포츠는 본래 '영웅의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근대올림픽의 부활 이후 스포츠는 귀족문화의 성격보다는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스포츠를 현대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 본다면, 스포츠는 고대 이후 종교와 전쟁의 시기를 통하여 나타났던 '영웅의 시대'를 현재까지 유일하게 이어가는 영역이다.

신체의 단련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스포츠의 전통적인 기능은 역사 이래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표현은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사회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도 건강이며, 이른바 '국민건강권'은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목표이다.

현대인은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많다. 현대인

은 성장과정에서 누구나 한 두가지 이상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비록 그것이 교육적인 차원이든 훈련의 차원이든, 스포츠는 현대인이 자아실현을 위해 부득이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계기이다.

그러나 스포츠가 단순한 취미 혹은 건강보전이라는 자아실현의 수단을 넘어 '대리체험을 통한' 자아실현의 목적으로 바뀌는 순간, 스포츠는 스포츠관람객을 현실적 비극세계에서 '허구적 영웅세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 '소외된' 현대인은 스포츠관람을 통해 '스포츠영웅'과 동일시된다.⁵³⁾ 스포츠관람객은 스포츠경기에 참여하는 시간과 정도 만큼 '자신을 경기자와 일체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한다. 스포츠경기에 몰두한 스포츠관람객은 경기의 승리와 패배, 경기자가 느끼는 용기와 좌절, 기쁨과 슬픔 등이 마치 자신의 체험처럼 받아들이며, 경기자 뿐 아니라 같이 참여한 관람객들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가 일체감있게 형성됨을 느낀다.⁵⁴⁾ 이는 스포츠경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기제양이나 국가연주 등과 같은 스포츠 의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⁵⁵⁾

이러한 특성이 스포츠가 사회적 통합기능을 갖는 측면과 연

53) 스포츠와 영웅의 역할에 대해서는 슈나이더·슈프라이저, "스포츠와 사회가치," 박홍규 외 공편, 「스포츠사회학」, 184-86쪽을 참조하라.

54) 오스터하우트, "19세기와 20세기 문명의 관련으로 본 근대올림픽피즘: 변형된 목적개념으로서 올림픽피즘과 스포츠에서 인간," 「올림픽의 사회학」, 414-18쪽 참조.

55) 2000년 9월 15일 시드니올림픽에서 남북한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공동입장하는 순간 경기장에 입장한 전체 관람객이 기립박수로 호응하는 장면은 남북한 국민의 통일정서를 자극했을 뿐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민족통합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관되어 있다.⁵⁶⁾ 스포츠는 민족주의의 기초가 되는 애국심을 자극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정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포츠가 갖는 정서적 통합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스포츠를 통한 일시적인 정서적 통합보다는 지속적인 사회적 통합이 가능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와 현실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스포츠를 통한 정서적 통합의 한계는 사회에 현실적 필요 충족이 실현되고, 개인에 내면화된 의식과 신념체계의 확립을 포함한 이념적 통합이 전제될 때, 이를 보완 혹은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월드컵 성공을 위한 정치의 과제: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

스포츠와 정치의 연관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왔다. 근대 올림픽의 개최 이후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영향은 날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국제스포츠 경기에서 정치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다만 제1차, 2차 세계대전 중에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참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스포츠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스포츠 활동의 정치화를 더욱 조장한

56) 그외에도 스포츠와 사회통합에 관한 유익한 분석으로는 하그리브스, “스포츠와 헤게모니,” 박홍규 외, 「스포츠사회학」, 353-81 쪽을 참조하라.

것은 매스미디어의 발달, 특히 TV를 통한 위성중계의 활성화에서 비롯되었다. 라이퍼는 올림픽경기의 정치화를 초래한 원인으로서 올림픽의 이념을 올바르게 전파하지 못한 IOC의 무능과 무책임,⁵⁷⁾ 경기규모의 거대화, 상업주의(commmercialism), 프로화(professionalism)의 진전 등과 같은 요인들이 밀접히 연관되어 상승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⁵⁸⁾

월드컵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월드컵은 올림픽과 달리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 간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대신, 국가대항전의 성격을 갖는 관계로 국가 간에 더욱 치열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민족주의(nationalism)의 문제를 안고 있다.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간에 축구경기가 과열되어 양국 간에 해묵은 갈등을 증폭시켜 실제로 일어난 축구전쟁 외에도 유럽에서 국제경기대회 때마다 폭력사태를 야기하는 홀리건의 난동 등은 민족주의에서 일탈한 쇼비니즘(chauvinism)에 가깝지만, 월드컵과 민족주의의 상관성은 무시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 20세기 초 일제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가 창설된 것은 1919년에 조선의 독립을

57) 이탈리아 사회학자인 Robert Michels가 주장한 소수지배의 철칙으로 대표되는 과두제의 원형으로 비교될 만큼, IOC의 관료화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는 심각한 정도이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 선수출신 IOC 위원이 몇 명 선출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에 부응하는 상징적인 조처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58) J. M. 라이퍼, “올림픽 경기에서 정치의 문제,” 「올림픽의 사회학」, 140-55쪽.

전세계에 알린 3·1운동의 민족적 저항 열기가 스포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조선체육회는 1929년 전조선경기대회를 개최한 이래 1934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하였고, 비록 식민지배 치하라는 한계를 지녔지만 스포츠 활동을 진흥시켜 국민의 단합과 민족정신을 고양하고자 했다.⁵⁹⁾

그 결실 중의 하나로서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의 우승과 남승룡의 3위 입상을 계기로 빚어진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보도를 통하여 민족의 현실을 깨닫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는 민족정서를 고취시킨 적도 있다. 특히 1941년 11월 3일 평양 일곡축구단이 동경에서 개최된 제12회 명치신궁 국민체육대회 일반부 결승전에서 승리한 것은 단순히 한 경기종목에서 우승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한 식민지 조선의 쾌거로 받아들여질 만큼, 우리 민족에게 축구는 처음 서양에서 도입된 이래 쉽게 대중화되어 국기(國技)에 가까울 정도로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었다.⁶⁰⁾

올림픽 경기를 비롯한 국제스포츠 경기, 특히 월드컵과 같은 국제축구대회에서는 민족주의가 개입하게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민족주의 외에도 정치적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들간의 스포츠 활동에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는 경우는 적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와 정치의 문제는 쉽게 풀기 힘든 난제다.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스

59) 이학래, 「한국근대체육사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90) 참조.

60) 우리나라에 서양식 축구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90년에 관립외국어학교의 교사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학래 외, 「한국체육사」(서울: 지식산업사, 1994), 191쪽.

스포츠 관계도 국가의 위신과 명예를 앞세우는 민족주의의 격돌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스포츠의 경기성적에 정치적 가치를 부여하는 국가의 태도는 국민대중의 정서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가 민족적인 우수성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나, 특정 국가의 사회·경제체제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어느 스포츠 학자는 스포츠와 국가위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정치와 스포츠의 연관성에 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100미터를 9초에 달리거나 2.5미터를 뛰어 넘거나 선수 자신에게는 현실적으로 하등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결정되는 우열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 스포츠 경기가 보여주는 무가치의 절대적 우열의 표시야말로 다른 모든 외부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가치하지만 절대의 우열을 둘러싸고, 모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포함된 경기로 변모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도, 모택동 사상도, 미국 보수주의도 스포츠에 참가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⁶¹⁾

외교정책의 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활용하려는 국가의 태도는 국제 스포츠교류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저해시키기도 한다.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각국이 참여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위선양이라는 목표가 갖는 정치성은 명백해진다.

스포츠—에서 승리가 곧 국력이나 국위로 간주되는 곳에서는 스포츠가 이미 정치의 도구로 변해버렸다는 사

61) 정동성, 「스포츠와 정치」(서울: 사람과 사람, 1997), 46쪽 인용.

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⁶²⁾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은 정치 개입을 용이하게 한다. 한편으로 정부가 스포츠 행사의 정치적 이용을 의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스포츠 활동을 저지하려고 정치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때 정치와 스포츠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버린다.⁶³⁾

올림픽 뿐 아니라, 국제스포츠 활동은 정치적 개입에 의해 손상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는 정치로부터 벗어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와 정치는 말처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나탄(Natan)의 말처럼, “현대 스포츠에서 정치적인 암시는 피할 길이 없으며, 정치성이 배제된 스포츠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⁶⁴⁾는 지적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더욱이 거대화된 국제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정치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스포츠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다.⁶⁵⁾

62) A. Natan, "Sport and Politics," J. Loy & G. Kenyon, ed., *Sport, Culture and Society*(New York: MacMillan, 1969), p. 206.; J. 콜웰, “올림픽에서 성공을 위한 사회문화적 결정요인,” 296쪽 인용.

63) 정치적 스포츠(political sport)라는 용어는 그 단적인 표현이다. 菅原禮 편저, 조명열·부기원 공역, 「스포츠사회학의 기초이론」(서울: 교육과학사, 1994), 204쪽 참조.

64) 현대사회와 스포츠 교재 편찬위원회, 「현대사회와 스포츠」(대구: 경북대출판부, 1998), 6쪽에서 인용.

65) 정동성, 「스포츠와 정치」, 21-32쪽.

스포츠는 사회통합이라는 순기능과 사회 갈등의 확장이라는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더욱이 국가간 갈등을 초래하는 국수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강한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갈등 구조 하에서 집단 또는 사회 관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충돌들이 스포츠 분야까지 확장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다.

스포츠와 정치는 전혀 다른 분야이면서도, 상당히 유사한 특성도 지니고 있다. 스포츠 활동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승패를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를 중시하는 스포츠맨십(sportsmanship)과 단체경기에서 구성원 간에 조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가치인 팀워크 등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이상적인 덕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들이다.

또한 정치와 스포츠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다. 정치의 과제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면, 스포츠 역시 사회통합의 한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⁶⁶⁾

더 나아가 국제스포츠 활동은 정치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동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스포츠를 정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하여 정치적 통제나 질서 유지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⁶⁷⁾

66) H. 에드워드, “근대올림픽 운동에 있어서의 위기,” 273-74쪽.

67) 임수원·안우홍 편저, 「스포츠사회학」(서울: 형설출판사, 1998), “스포츠와 정치,” 281-92쪽.

메이노(J. Meynaud)는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동기로서 공공질서의 유지, 국민체력의 향상, 국가권위의 확립 등을 들고 있다. 위의 세가지 요인 가운데 공공질서의 유지와 국민체력의 향상은 국내적인 차원의 개입 동기로서 볼 수 있고, 국가권위의 확립은 국제적인 차원의 개입 동기로서도 연관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동기들이 엄밀히 구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관성을 갖고 있다.⁶⁸⁾

스포츠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역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지도자의 양성, 둘째 스포츠 시설 등 운동 환경의 확충과 정비, 셋째 자료와 서비스의 제공, 넷째 체육·스포츠 사업의 전개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관한 것 외에도 민간 스포츠 단체에 대한 활동자금의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재정지원도 중요한 역할에 속한다.⁶⁹⁾

스포츠에 대한 정치의 개입은 규제나 감시 차원 또는 국가나 정부 차원의 강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⁷⁰⁾ 다시 말하면,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정치 개입의 상당한 부분은 스포츠계의 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이나 각종 편의 제공 등은 스포츠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요청에 따른 개입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⁷¹⁾ 더 나아가 메이노와 같은 학자는 스포츠 활동에서 중요한 결정과 책임을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68) 정동성, 「스포츠와 정치」, 34-48쪽 참조.

69) 정동성, 「스포츠와 정치」, 48쪽.

70) 「현대사회와 스포츠」, 7쪽 참조.

71) 정동성, 「스포츠와 정치」, 50쪽.

결국 근대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적·경제적 기능이나 책임의 총체를 고려해 보면, 스포츠 분야의 감독권이라든가 스포츠 진흥상의 직권 등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대다수의 스포츠 단체가 원하는 부족한 재원의 보충에만 공권력의 역할을 한정하려고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⁷²⁾

요컨대 스포츠 영역에 대한 정치의 개입은 근대국가의 특징적인 메커니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⁷³⁾ 다만 국가의 성격에 따라 스포츠에 대한 정치개입의 수준과 정도가 차이가 날 뿐이다.⁷⁴⁾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들간에 전쟁을 제외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스포츠경기를 활용해온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⁷⁵⁾ 그러나 스포츠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인정할지라도, 그것은 정부가 수립하는 스포츠 정책과 연관된 것이지, 정책의 실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정부가 취하는 입장을 스포츠 관계자에게 강요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와 정치의 상관성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단절이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적정 수준과 합리적인 개입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다. 다만,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과, 스포츠가 정치의 개입

72) 정동성, 「스포츠와 정치」, 52쪽 인용.

73) 정동성, 「스포츠와 정치」, 50쪽.

74)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분석을 위해서는 그뤼노, “국가논쟁에서 본 스포츠,” 박홍규 외, 「스포츠사회학」, 323-51쪽을 참조하라.

75) 로이, “스포츠 관람 이론,” 334쪽.

을 유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동기와 목적이 정치공동체의 공동선 (common good)을 침해한다면, 정치적 개입은 그 존립근거를 잃게 됨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5) 월드컵 성공을 위한 정치적 개입의 의의와 형태:

시민통합을 위한 관-민-NGO 협력(partnership) 구축 방안

스포츠에 대한 정치의 개입 문제는 분명한 원칙과 신중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개입, 즉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데는 개입의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스포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적 개입의 동기와 필요가 요청되는 경우에도 행정부 차원에서는 개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정치의 개입은 개입의 부담과 개입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의 개입은 일차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운영과정에 대한 규제 강화로 특징지어진다. 정부와 스포츠 관계자는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이중성이 갖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부의 개입 형식은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 중에서 어느 것이 개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개입이 결정되더라도, 정부는 정치의 개입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입의 수준과 개입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개입의 수준과 범위와 연관된 점은 개입의 참여와

운영에 관한 역할 분담에 관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스포츠에 대한 정치의 개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성과를 민간차원에서 평가하자면,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 어쩌면 이러한 과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조차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에서 스포츠와 정치의 개입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제시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이번 월드컵에서 부분적이거나 가능한 방향 제시를 시도한다.

월드컵이 일부 관심층이나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성 행사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필자 역시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몇 가지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지나친 기대를 한 것은 아닌가 하고 회의를 느끼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오는 2002년 월드컵은 이런 상태로 치를 수 없다. 1988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결과적으로 기여했다면,⁷⁶⁾ 이번 월드컵은 건국 이후 최대의 불명예 사건 중의 하나인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모습을 전세계에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제기되어 있다.

이번 월드컵은 대외적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전, 한때 칭송 받았던 한강의 기적이 결코 사상누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새로운 천년시대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

76) 김종기 외,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성과」 (한국개발연구원, 1989).

신을 심어주어 국가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삼고, 대내적으로는 지역, 계층, 세대별로 갈기갈기 찢어진 국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이다. 따라서 월드컵 개최를 활용한 홍보전략도 스포츠마케팅⁷⁷⁾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시하는 접근보다 사회 통합, 민족통합과 같은 국가적, 민족적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라는 이상에 부합하는 한편, 축구가 갖는 특성상 민족통합의 상승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⁷⁸⁾

이번 월드컵은 온 국민이 참여하는 월드컵, 더 나아가 분단 이후 최초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로 이어지는 결실로 남북 분산개최가 실현될 경우에는 민족의 월드컵, 평화의 월드컵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출발은 국민의 참여, 서울의 경우에 국한시켜 보자면, '서울월드컵'은 서울시민의 참여에서 시작된다.

다만 지난 역사 동안 억압받고 무시당한 탓으로 시민이 스스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나서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놓여 있는 만큼, 시민의 직접 참여 방식 대신 간접 참여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연관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부상한 사회참여 세력 중의 하나로서, 이른바 '제5부' 혹은 '제5의 권력'이라는 시민단체(NGO)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의 매개 혹은 통로

77) 김영석, 「스포츠와 미디어 그리고 마케팅」(서울: 신아, 2000) 참조.

78) 이학래 외, 「현대사회와 스포츠」(서울: 사람과 사람, 1998), 291-93쪽.

역할로서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민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혹은 확산을 위한 계몽, 선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것은 시대의 요청인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요, 정치의 객체에서 주체로 성장한 시민민주주의(*citoyen democracy*)의 길을 향한 중요한 계기다.⁷⁹⁾

만일 최선의 방식으로 시민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개별 NGO의 참여를 넘어 서울시 단위 전체 NGO가 연대하여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월드컵 성공을 위한 관 * 민 * NGO 협력방안(*partnership*) 모델의 성립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제2건국위원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의 경우에도 자칫 잘못 시도하다가 오히려 대부분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시민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와 섬세한 관찰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역사가 길지 않다. 물론 그 이전에 시민단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79) 한국사회 시민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박호성, “한국의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과제,” 중산 민준기선생 정년기념논문집(근간)을 참조하라.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계기로 설립된 경실련의 출범 이후 한국사회에 시민단체의 설립은 폭발적으로 증대해왔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 (상위10)

단체명	설립년도	단체명	설립년도
성균관	1398년	홍사단	1913년
한국 YMCA서울	1903년	한국 YMCA전국연맹	1914년
대한적십자사	1905년	한국 YMCA대구	1918년
대한변호사협회	1905년	대한광업회	1918년
한국불교청년회	1911년	대한상공회의소 청주	1919년

2000년 시민단체총람에서는 민간단체 4023개(학회와 해외단체까지 합하면 6159개)가 조사되었다. 1997년 총람에서는 지부조직까지 합하면 9400여 단체가 조사되었으나, 2000년 총람에서는 지부조직까지 합하는 경우 20,000여 단체에 달한다.

<표 1: 한국사회 시민단체 현황(1999년 8월말 기준)>

구분	단체수	1940년 이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1987년 이전	1988년 이후	합 계
시민 사회	908	4.9	1.7	5.4	7.6	18.4	62.0	21.6	26.5	24.9
지역 자치	192	-	-	-	2.1	11.5	86.5	0.9	7.4	5.3
사회 서비스	686	1.6	4.1	6.4	7.7	27.4	52.8	20.4	18.1	18.8
환경	259	0.4	-	0.8	2.7	8.5	87.6	1.8	9.6	7.1
문화	563	5.3	2.5	7.6	10.5	23.8	50.3	17.4	14.5	15.5
교육/ 학술	208	2.4	1.9	3.8	7.7	28.8	55.3	4.9	6.1	5.7
종 교	97	5.2	-	9.3	21.6	27.8	36.1	4.4	1.8	2.7
노동/ 농어민	1997	3.6	4.1	10.7	9.6	25.4	46.7	6.2	5.0	5.4
경제	473	2.7	2.7	15.6	15.2	22.2	41.4	19.6	9.9	13.0
국 제	42	2.4	4.8	21.4	21.4	19.0	31.0	2.2	0.6	1.2
기 타	18	-	16.7	16.7	-	22.2	44.4	0.6	0.4	0.5
전 체	3643	3.2	2.4	7.2	9.0	21.0	56.5	100.0	100.0	100.0

참고: <분야별 민간단체의 설립 연도 표>⁸⁰⁾

유의사항: 1. 2000년도총람에 수록된 2만여 단체중 학술단체, 재외동포단체 미포
함된 숫자임.

2. 설립연도 무응답(380단체)은 집계에서 제외됨.

80) “한국민간단체의 현황-한국 민간단체총람2000 분석,” 「민간단체
종합정보 네트워크 2000 자료집」(1999. 10), 5쪽.

<표2: 한국시민단체의 분야별 지역별 분포 현황>

구 분	시민 사회	지역 자치	사회 서비스	환 경	문 화	교육 / 학술	종 교	노동/ 농어민	경 제	국 제	기 타	합 계
단체수	1013	222	743	287	634	235	107	217	501	44	20	4023
서울	47.0	15.3	48.3	34.8	61.2	60.0	82.2	48.8	89.4	88.6	85.0	54.6
부산	31.8	5.0	5.9	3.1	4.6	6.4	2.8	5.5	1.4	-	5.0	4.2
대구	2.7	2.7	3.2	3.1	2.1	3.8	1.9	1.8	0.6	2.3	-	2.4
인천	3.9	7.2	4.0	3.1	1.3	1.3	1.9	2.8	1.0	-	-	3.0
대전	2.7	2.7	4.2	2.4	2.1	1.7	0.9	1.4	0.8	-	-	2.4
광주	4.1	3.6	4.3	4.5	3.8	3.0	1.9	2.8	0.2	-	-	3.4
울산	1.2	1.8	0.9	2.8	0.5	0.9	-	0.9	-	-	-	0.9
경기	11.0	21.6	7.5	13.6	3.5	10.6	2.8	10.1	1.6	4.5	-	8.4
강원	2.8	3.2	2.0	3.5	1.3	0.9	-	1.4	0.2	-	-	1.8
충남	2.3	6.8	1.1	2.8	1.9	2.6	-	2.3	0.8	-	5.0	2.0
충북	2.3	2.7	2.2	2.4	2.4	0.4	-	6.0	0.8	-	-	2.1
경남	3.8	5.0	2.4	4.5	4.1	2.1	0.9	3.7	0.8	-	-	3.1
경북	2.3	2.7	3.0	6.3	2.8	1.7	-	1.8	0.8	2.3	5.0	2.5
전남	3.7	9.0	2.0	6.6	2.7	1.3	-	3.2	0.4	-	-	3.0
전북	5.6	9.0	7.3	4.2	4.7	2.6	3.7	5.5	0.4	-	-	4.9
제주	1.1	1.8	1.6	2.1	1.3	0.9	0.9	1.8	0.8	2.3	-	1.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참고: <분야별 민간단체의 설립 연도 표>81)

유의사항: 1. 2000년도총람에 수록된 2만여 단체중 학술단체, 재외동포단체 미포함된 숫자임.

2. 설립연도 무응답(380단체)은 집계에서 제외됨.

81) “한국민간단체의 현황-한국 민간단체총람2000 분석,” 「민간단체 종합정보 네트워크 2000 자료집」(1999. 10), 5쪽.

1999년도 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조사대상 4023개 중 서울(54.6%), 경기(8.4%), 전북(4.9%)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과반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⁸²⁾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시민단체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저마다 다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데 더하여, 탈근대적인 사회적 쟁점의 부각에 따라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생성된 조직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시민운동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졌다. 시민운동의 영역은 분배 정의, 교육 민주화, 지방자치 활성화 등과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서부터 시민의 생활에 밀착된 환경, 소비자, 인권 등과 같이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영역 가운데 어느 영역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은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 다르다.

82) 기타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한국민간단체의 현황-한국 민간단체 총람2000 분석,” 「민간단체 종합정보 네트워크 2000 자료집」 (1999. 10)을 참조하라.

<표3> 시민운동의 주요 활동 영역에 대한 인식 현황

항 목	구 분	
	NGO 구성원	시 민
1.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4.39	4.26
2. 사회민주화를 위한 운동	4.46	4.13
3. 환경운동	4.70	4.48
4. 인권운동	4.62	4.38
5. 통일운동	4.33	3.84
6.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운동	4.35	4.05
7. 소비자보호운동	4.32	4.30
8. 세계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4.16	3.76
9. 지방자치활성화운동	4.28	3.73
10. 교육민주화, 대안교육활동	4.50	4.16
11. 복지, 자원봉사활동	4.45	2.36

참고: <NGO구성원과 시민의 NGO 주요 활동영역에 대한 중요성
평정결과표>83)

83) 「NGO2000 시민참여한마당 개최 기념토론회 자료집」(2000. 5), 16쪽. 본 조사는 2000년 5월 22일에서 5월 2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NGO활동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과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 설문조사 1000명, 면접조사 기법을 사용한 시민 조사 465명, 면접조사와 우편조사 기법을 함께 사용한 NGO활동가 180명이었다. 이 표에서는 'NGO 주요 활동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는 평정의 척도로 제시된 5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평균치를 산출하여 항목들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시민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인식과 간접 참여하는 시민들의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양자는 모두 시민운동의 과제로서 인권, 교육, 사회민주화,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활동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특이한 사실은 소비자 보호, 복지,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도에 관한 양자의 인식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존 시민단체의 성격이 천차만별인 데다가 온갖 이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관계를 구상하는 데는 처음부터 신중한 이해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수적이다. 우선 시행착오를 막기 위하여 최근 시민운동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된 민관협력방안에 관한 시민단체의 현실 인식을 파악하고, 본 과제와 연결시켜 협력가능한 범위와 수준 및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시민운동의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직접 혹은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목표로, 시민운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권력감시형 사회운동에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서비스 기능 활성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시민운동의 존재의의가 비판과 문제제기로만 자리잡을 수 없음을 인식한 결과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하고 나아가 권리와 의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운동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초기 전문직업인 중심의 운동에서 대중적 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단체들은 제도개혁 못지 않게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교육사업, 생활실천운동으로 영역

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운동과 정부의 관계도 무조건 배타적인 대립과 갈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협력과 공조가 가능할 수 있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시민운동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가의 견제, 비판 기능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대립관계를 벗어나 종합(synthesis) 혹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시민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번 월드컵에서 시민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점차 폭넓게 시도될 시민단체 협력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NGO와 정부 더 나아가 기업간의 파트너십 관계의 필요성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문제들은 정부정책과 기업의 동참 및 NGO의 공조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는 그 전제가 되는 시민단체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또한 시민단체간 상호신뢰관계나 시민단체 내부의 사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니, 그 결과는 처음부터 예측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의 인식변화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시민운동을 사회적 문제해결과 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동반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NGO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제도와 법의 정비, 정보제공 등 시민운동의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시민운동 매뉴얼제작이나 단체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을 지원하는 컨설팅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또한 2000년 4월 시행된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우편요금 감액폭 확대, 대상단체 요건 완화 등 지원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월드컵을 준비하는 서울시를 비롯한 거의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일부 도시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듯이, 월드컵이라는 국제스포츠행사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한편으로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참여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관료주의적인 방식으로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미 주어진 틀 속에서 규정된 역할만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결과적으로 대다수 시민의 불참을 유도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마다 다른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도 지역별, 단체별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단체를 매개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고유 활동영역과 연대사업활동의 역량과 한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간, 시민운동가들간 신뢰관계를 사전에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동원된 참여' 대신 '자발적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월드컵행사를 위한 일회성 활 용의 대상이 아닌 시정의 동반자로서 대우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일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 월드컵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의 일부 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본문에서 제시 될 시민단체의 협력 도출 방안은 관계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삼 재사 검토를 요구하는 신중한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빈 면

제 2 장 서울시민의 월드컵축구대회인식

제 2 장 서울시민의 월드컵 축구대회 인식

본 장은 위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부록 설문지에서 보듯 조사 내용은 크게 ① 운동경기/축구경기에 대한 호감도 ② 월드컵 개최에 대한 평가 ③ 자원봉사 경험과 참여의사 ④ 월드컵 성공개최의 조건과 서울시의 미흡한 점 ⑤ 월드컵 소외계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이다.

수거된 설문지 659개 중 응답률 60% 이하인 83개를 제외한 575개를 유효표본으로 분석했다. 표본은 무작위 추출하지 않고 일반인(거리설문, 유효표본 217), 주부(주부학교설문, 유효표본 85), 학생(고시학원설문, 유효표본 243) 등 3개 군집으로 구분하여 선정했다. 주부·학생 군집을 선정한 것은 이들을 월드컵의 잠재적 소외계층(소외 당하는 계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본 설문의 항목(변수)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 카이제곱 검정, 방향성 측도, 대칭적 측도 등 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어슨 상관계수상 유의한 경우는 전무했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점근유의확률 0.05 이하), 대칭적 측도(근사유의확률 절대값 0.5이상)상 유의수준을 넘는다해도 항목의 절대 빈도수가 낮은 경우가 많아 통계학적 해석을 도출하기엔 무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설문의 통계학적 해석보다는 교차빈도표를 활용해 군집별로 소득별·성별·연령별·학력별 차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역으로 군집별 월드컵 소외계층을 찾아내고 그

들의 인식을 중점 파악함으로써 '월드컵을 통한 시민통합(즉, 소외계층 포용)'이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찾는 단서로 활용코자 했다. 아울러, '월드컵 개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같은 일부 설문항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999년 12월 16일 실시한 "2002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를 위한 서울시민 의식조사 보고서"(이하 "서울시 조사보고서")의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시계열적 의식변화의 일단을 포착할 수 있었다.

가.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1) 성별 구성

<표1-1> 전체 응답자의 성별 구성비

성별	도수	유효도수(%)
남자	312	56%
여자	247	44%

<표1-2> 일반인 응답자 군집의 성별 구성비

성별	도수	유효도수(%)
남자	188	92%
여자	17	8%

<표1-3> 학생 응답자 군집의 성별 구성비

성별	도수	유효도수(%)
남자	199	50%
여자	121	50%

남성 321명(56%), 여성 247명(44%)으로 성별 구성에서 다소 불균형을 보인다. 전원이 여성인 주부군집(85명)을 제외하면 남 67%, 여 33%로 불균형이 커진다. 특히 일반인 군집에서는 남 여 구성비율이 각각 91%, 9%(무응답 제외)로 남성 위주의 표본이라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군집에서만 남 49%, 여 51%로 균형을 보인다. 따라서 성별 차이는 전체군집과 학생군집에서만 의미가 있다 하겠다.

2) 연령별 구성

<표2-1> 전체 응답자의 연령별 구성비

연령	도수	유효도수(%)
15세 미만	5	1%
15~20세	33	6%
21~30세	329	58%
31~40세	112	20%
41~50세	54	9%
50세 이상	39	7%

<표2-2> 일반인 응답자 군집의 연령별 구성비

연령	도수	유효도수(%)
15세 미만	4	2%
15~20세	17	7%
21~30세	78	31%
31~40세	81	33%
41~50세	53	21%
50세 이상	15	6%

<표2-3> 주부 응답자 군집의 연령별 구성비

연령	도수	유효도수(%)
15세 미만	0	0%
15~20세	0	0%
21~30세	0	0%
31~40세	28	33%
41~50세	33	39%
50세 이상	24	28%

20세 미만이 7%, 20대 58%, 30대 20%, 40대 9%, 50세 이상 7%로 2, 30대에 편중된 분포를 보인다. 20대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군집은 물론, 일반인군집도 2, 30대가 73%를 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부군집은 20대가 없는 대신 30대 33%, 40

<표2-4> 일반인 응답자 군집의 연령별 구성비

연령	도수	유효도수(%)
15세 미만	5	1%
15~20세	33	6%
21~30세	329	58%
31~40세	112	20%
41~50세	54	9%
50세 이상	39	7%

대 39%, 50세 이상 28%로 세 연령집단간 비교적 균형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3) 소득별 구성

<표3-1> 전체 응답자의 가구소득별 구성비

가구소득	도수	유효도수(%)
1000만원 이하	156	33%
1000~2000만원	119	25%
2000~3000만원	109	23%
3000~5000만원	73	15%
5000만원 이상	17	4%

<표3-2> 일반인 응답자 군집의 가구소득별 구성비

가구소득	도수	유효도수(%)
1000만원 이하	49	24%
1000~2000만원	68	23%
2000~3000만원	49	24%
3000~5000만원	32	16%
5000만원 이상	6	3%

<표3-3> 주부 응답자 군집의 가구소득별 구성비

가구소득	도수	유효도수(%)
1000만원 이하	13	17%
1000~2000만원	22	29%
2000~3000만원	21	27%
3000~5000만원	17	22%
5000만원 이상	4	5%

<표3-4> 학생 응답자 군집의 가구소득별 구성비

가구소득	도수	유효도수(%)
1000만원 이하	73	43%
1000~2000만원	29	17%
2000~3000만원	38	22%
3000~5000만원	22	13%
5000만원 이상	7	5%

가구 연소득 2000만원 이하가 58%, 2000 ~ 5000만원 38%, 5000만원 이상 4%로 나타나고 있다. 주부군집은 그 비중이 각각 46%, 49%, 5%로 상대적으로 중간 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직업별 구성

<표4-1> 전체 응답자의 직업별 구성비

직업	도수	유효도수(%)
무직	187	34%
봉급생활자	114	21%
중소자영업자	25	5%
중소기업경영	9	2%
전문서비스업	11	2%
재산 소득자	1	0%
기타	208	37%

본 조사의 응답자 중 무직·기타·무응답이 70%에 달해 직업별 구성의 범주적 변별력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주부군집이 포함된 때문이다. 무직·무응답은 대부분 학생·주부군집으로 봐도 될 것이다. 일반인 군집에서도 무직·기타·무응답이 32%(70명)를 점한다. 직업을 명시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봉급생활자 71%, 중소기업영업자 16%, 전문서비스업 7%, 중소기업경영 5%, 재산소득자 1%로 봉급생활자가 대부분이다.

5) 학력별 구성

<표5-1> 전체 응답자의 학력별 구성비

학력	도수	유효도수(%)
중졸 이하	29	5%
고졸	178	32%
대졸 이상	344	62%

<표5-2> 일반인 응답자 군집의 학력별 구성비

학력	도수	유효도수(%)
중졸 이하	17	8%
고졸	55	25%
대졸 이상	141	65%

중졸 이하 5%, 고졸 32%, 대졸이상 63%로 고학력 군집임을

<표5-3> 주부 응답자 군집의 학력별 구성비

학력	도수	유효도수(%)
중졸 이하	12	15%
고졸	46	58%
대졸 이상	21	27%

<표5-4> 학생 응답자 군집의 학력별 구성비

학력	도수	유효도수(%)
중졸 이하	0	0%
고졸	71	29%
대졸 이상	160	66%

알 수 있다. 전체 표본 수의 42%를 차지하는 학생군집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군집은 중졸 이하는 없고 고졸 31%, 대졸 이상이 69%다. 반면 주부군집은 중졸 이하 15%, 고졸 58%, 대졸 이상 2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나. 조사결과 분석

1) 운동(축구)경기 관람/시청 호감도

<표6-1> 전체 응답자의 운동경기관람 호감도

호감도	도수	유효도수(%)
아주 좋아한다	153	27%
좋아한다	314	55%
싫어한다	36	6%
아주 싫어한다	2	0%
관심없다	68	12%

<표6-2> 일반인 군집의 운동경기관람 호감도

호감도	도수	유효도수(%)
아주 좋아한다	70	32%
좋아한다	117	54%
싫어한다	9	4%
아주 싫어한다	0	0%
관심없다	20	9%

전체적으로 운동경기는 82%, 축구경기는 80%의 관람/시청 호감도를 보여준다. 일반인군집은 86%, 87%로 상대적으로 더욱 호감도가 높았다. 주부군집도 각각 79%로 , 학생군집은 80%, 76%로 시민 대부분이 운동경기/축구경기를 관람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3> 주부 군집의 운동경기관람 호감도

호감도	도수	유효도수(%)
아주 좋아한다	12	14%
좋아한다	55	65%
싫어한다	5	6%
아주 싫어한다	0	0%
관심없다	13	15%

<표6-4> 학생 군집의 운동경기관람 호감도

호감도	도수	유효도수(%)
아주 좋아한다	66	27%
좋아한다	127	52%
싫어한다	19	8%
아주 싫어한다	1	0%
관심없다	29	12%

<표6-5> 전체 응답자의 축구경기관람 호감도

호감도	도수	유효도수(%)
아주 좋아한다	151	26%
좋아한다	309	54%
싫어한다	43	8%
아주 싫어한다	1	0%
관심없다	67	12%

그런데 군집별 인구특성별로 몇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포착된다. 먼저 일반인군집에서는 소득수준별 차이가 감지됐다. 중간소득(2000~5000만원) 집단의 호감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저소득(2000만원 이하) 집단이었으며, 고소득(50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낮은 고소득 집단이 월드컵의 잠재적 소의계층(냉담계층)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표6-6> 일반인 군집의 축구경기관람 호감도

호감도	도수	유효도수(%)
아주 좋아한다	77	36%
좋아한다	112	52%
싫어한다	9	4%
아주 싫어한다	0	0%
관심없다	18	8%

<표6-7> 주부 군집의 축구경기관람 호감도

호감도	도수	유효도수(%)
아주 좋아한다	12	14%
좋아한다	55	65%
싫어한다	8	10%
아주 싫어한다	0	0%
관심없다	9	11%

<표6-8> 학생 군집의 축구경기관람 호감도

호감도	도수	유효도수(%)
아주 좋아한다	56	23%
좋아한다	128	53%
싫어한다	24	10%
아주 싫어한다	1	0%
관심없다	32	13%

다음으로 주부군집에서는 소득수준별, 학력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소득과 학력간 상관관계는 일단 논외로 한다) 일반인 군집과 마찬가지로 중간소득집단이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고 저소득집단과 고소득 집단이 비슷하게 호감도가 낮았다. 따라서 주부군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집단이 월드컵의 잠재적 소외계층(냉담계층)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학력별로는 약간 엇갈리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즉 운동경기 관람/시청은 학력이 낮을수록, 축구경기 관람/시청은 학력이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축구경기만을 놓고 보면 주부군집에서는 저학력 집단이 월드컵의 잠재적 소외계층(냉담계층)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학생군집에서는 고소득집단보다는 중상소득집단(3000~5000만원)의 축구경기 관람/시청 호감도가 낮아 월드컵 잠재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으나 가구소득에 대한 학생군집 응답의 낮은 신뢰도를 고려할 때 일단은 논의에서 제외해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전체군집에서 살펴보면 소득수준별·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운동(축구)경기 관람/시청 호감도가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고소득집단과 여성을 월드컵의 잠재적 소외계층으로 일단 의심할 수 있다.

2) 월드컵 개최에 대한 평가

<표7-1> 전체 응답자의 월드컵개최에 대한 평가

개최여론	도수	유효도수(%)
아주 잘한 일이다	230	40%
잘한 일이다	300	53%
잘 못한 일이다	21	4%
아주 잘못된 일이다	1	0%
관심없다	19	3%

<표7-2> 일반인 군집의 월드컵개최에 대한 평가

개최여론	도수	유효도수(%)
아주 잘한 일이다	93	43%
잘한 일이다	110	51%
잘 못한 일이다	5	2%
아주 잘못된 일이다	1	0%
관심없다	8	4%

전체적으로, 월드컵 개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거의 대부분 (93%)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소득집단별 차이가 발견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고소득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긍정평가를 보임으로써 위 1)의 운동(축구)경기 관람/시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집단이 월드컵 잠재소의 계층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군집별로 관찰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단 학생군집은 일치하지 않음).

<표7-3> 주부 군집의 월드컵개최에 대한 평가

개최여론	도수	유효도수(%)
아주 잘한 일이다	26	31%
잘한 일이다	53	63%
잘 못한 일이다	2	2%
아주 잘못된 일이다	0	0%
관심없다	3	4%

<표7-4> 학생 군집의 월드컵개최에 대한 평가

개최여론	도수	유효도수(%)
아주 잘한 일이다	98	41%
잘한 일이다	121	50%
잘 못한 일이다	13	5%
아주 잘못된 일이다	0	0%
관심없다	8	3%

월드컵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집단별로 차이

가 나타난다. 일반인군집에서는 고소득/고학력집단은 '국가 이미지와 위신 향상'을, 저소득집단은 '경제발전 등 국가발전'을, 저학력집단은 '국민단합'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았다. 주부군집에서도 고소득/고학력집단은 '국가 이미지와 위신 향상'을 중요한 이유로 보았다. 다만, 일반군집과 차이가 나는 것은 저소득집단이 '국민단합'인 반면 저학력집단은 '국가발전'에 더 무게를 둔 점이다. 같은 긍정이라 하더라도 시민상류층일수록 월드컵의 현실적 가치보다는 상징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둔다는 것은 긍정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비판적 긍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절대 소수이긴 하지만 월드컵 개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는 '국내정치 등 해결할 중요문제를 호도'한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아 관심을 끈다. 이런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집단에 많았으며 그 외 군집별/범주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3) 자원봉사 경험과 참여의사

전체 응답자 중 자원봉사 경험자는 29%, 2002년 월드컵에 자원봉사할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40%로 나타났다. 의향과 실행간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참여 활성화 추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월드컵 자원봉사 의향 비율 35%보다는 다소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본다.

<표8-1> 전체 응답자의 자원봉사 참가경험

자원봉사경험	도수	유효도수(%)
있다	166	29%
없다	397	71%

<표8-2> 일반인 군집의 자원봉사 참가경험

자원봉사경험	도수	유효도수(%)
있다	67	31%
없다	148	69%

<표8-3> 주부 군집의 자원봉사 참가경험

자원봉사경험	도수	유효도수(%)
있다	21	26%
없다	60	74%

<표8-4> 학생 군집의 자원봉사 참가경험

자원봉사경험	도수	유효도수(%)
있다	64	27%
없다	174	73%

자원봉사 경험은 연령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발적 봉사참

여보다는 하향적 동원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한다.

한편 소득별로는 중상집단이 가장 활발한 반면 고소득집단이 가장 저조함으로써 참여의 측면에서도 고소득집단이 월드컵 잠재소의계층일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학력별로는 고졸집단이 34%로 대졸이상 집단 27%보다 다소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

<표8-5> 전체 응답자의 자원봉사 참여의사

참여의사	도수	유효도수(%)
있다	224	40%
없다	336	60%

<표8-6> 일반인 군집의 자원봉사 참여의사

참여의사	도수	유효도수(%)
있다	80	38%
없다	133	62%

그러나 주부군집에선 소득집단별 차이에서 상반된 현상이 관찰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봉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중상 및 고소득집단(3000만원 이상) 주부는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50%가 자원봉사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원봉사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학력별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주목된다. 고졸 35%, 대졸 이상 19%, 중졸 이하 8%로, 주부군집에선 고졸학력집단이 가장 충실한 봉사자원이 되고 있다. 연령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7> 주부 군집의 자원봉사 참여의사

참여의사	도수	유효도수(%)
있다	26	33%
없다	52	67%

<표8-8> 학생 군집의 자원봉사 참여의사

참여의사	도수	유효도수(%)
있다	97	41%
없다	141	59%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 의향비율도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하의 중하소득집단에 비해 중상 및 고소득집단은 현격히 낮은 의향비율을 보이고 있어 역시 고소득집단이 월드컵 잠재소외계층일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서 기존 봉사경험이 가장 활발한 3000만원~5000만원의 중간소득집단이 월드컵 자원봉사 의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충실한 봉사집단을 포용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참여 의향이 현저히 낮은 점이 주목된다 (26%). 봉사자원의 질 면에서 가장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면서도 생애주기상 봉사의 여유가 가장 적은 40대의 참여의향을 고취할 방안이 있어야겠다. 학력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주부군집에선 자원봉사경험의 경우와는 다른 현상이 주목된다. 즉, 자원봉사 경험이 가장 풍부한 중상이상 소득집단이 월드컵 자원봉사의향은 중상집단 18%, 고소득집단 25%로 상대적으로 저조할 뿐 아니라 과거 자원봉사경험 비율 50%에 크게 못 미침으로써 기존 봉사경험이 월드컵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한편 학력별로는 자원봉사경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졸집단(35%)이 대졸이상 집단(29%)보다 적극적이며, 자원봉사경험의 경우 주부군집에서 연령별 차이는 별로 없었으나 월드컵 자원봉사의향은 50대 이상이 46%로 가장 적극적인 반면 40대는 21%로 매우 낮아 전체군집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주부군집은 전체군집과 달리 고소득집단이 기존 봉사경험 등 참여 잠재력이 큰 계층인데도 월드컵에 대한 봉사참여의향이 낮음으로써 소외(냉담)계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고소득이고 고학력이며 40대인 주부들에게 참여의식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월드컵 자원봉사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경험과 자신감이 부족해서'를 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도 고소득집단은 '시간 낭비이므로' '불필요한 행사로 자원봉사할 가치가 없으므로' '나와는 관계없는 일부만의 행사이므로'와 같은 냉소적 이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역시 고소득집단의 소외(냉담)현상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집단의 냉소적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주부군집은 월드컵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중 '경험과 자신감이 부족해서'가 69%로 냉소적 경향이 가장 작았다. 주부군집 내에서 소

특별, 연령별 학력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향후 월드컵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①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은 최대한 유인·활용하고 ②경험이나 자신감 부족 등 냉소적이 아닌 이유로 주저하는 (주부)집단을 포용하며 ③ 냉소적 경향이 있는 (고소득)집단의 참여를 유인하는 다면적 전략이 필요하다.

4) 월드컵 성공개최의 조건과 서울시의 미흡한 점

<표9-1>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조건

성공조건	1순위	2순위	3순위	평점	유효도수(%)
경기장/관련시설	190	75	54	774	28%
안전	46	57	37	289	11%
원활한 교통	43	60	51	300	11%
자원봉사	13	40	38	157	6%
도시환경	23	52	35	208	8%
숙박/관광시설	9	32	42	133	5%
국민적 관심	187	60	75	456	28%
사회체육시설	12	12	44	104	4%
기타	3	0	2	11	0%

서울시의 미흡한 점에 대해선 “서울시 조사보고서”의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와 비교 가능하다. 그러나 본 조사가 “서울시 조사보고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돼 응답항목이 다소 차이가 나므로 비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표9-2> 월드컵의 개최 미흡한점

성공조건	1순위	2순위	3순위	평점	유효도수(%)
경기장/관련시설	68	33	45	315	12%
안전	30	28	30	176	7%
원활한 교통	205	98	40	851	33%
자원봉사	5	22	29	88	3%
도시환경	82	127	59	559	22%
숙박/관광시설	14	50	74	216	8%
국민적 관심	21	22	34	141	5%
사회체육시설	38	19	64	216	8%
기타	1	1	1	6	0%

먼저 월드컵 성공개최의 조건으로는 ①훌륭한 경기장 및 관련시설(28%) ②국민의 관심과 성원(28%) ③원활한 교통(11%) ④ 안전(11%)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효과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지적은 6%로 매우 낮은 점이 주목된다.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훌륭한 경기장 및 관련시설' 만큼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유의할 사항이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미흡한 점으로는 ①교통(33%) ②도시환경(22%) ③경기장/관련시설(12%) ④사회체육시설(8%), 숙박시설(8%) ⑥ 안전(7%) 등이 지적됐다. "서울시 조사보고서"에서는 그 순서가 ①교통(43%) ②시민의식(21%) ③도시환경(9%) ④관광상품(9%) ⑤숙박시설(8%)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조사보고서"는 경기장 관련 항목을 제외했고 본 조사에선 '시민의식 개선'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양 조사 결과간 수평비교는 곤란하다. (다만, 본 조사 결과는 "서울시 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비해 교통문제에 대한 지적 비율이 10% 정도 작은 반면, 도시환경에 대한 지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특징은 참고할만하다.) 이와 관련해서 '월드컵을 국가 및 서울시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필요작업'을 물어

본 본 조사의 주관식 문항이 “서울시 조사보고서”와 좋은 비교가 된다. 응답결과는 ①전 국민의 성원, 시민의식의 발전(49%) ②교통문제해결(15%) ③홍보/마케팅(15%) ④관광산업발전(8%) 등의 순서였고, ‘남북분산개최’도 4%가 나왔다. 교통문제의 지적이 15%에 그쳤다는 것, 반면 국민의 성원과 시민의식 등 멘탈리티에 관한 지적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는 결과는 주목할만하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이 항목이 의미를 갖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월드컵 성공개최의 조건으로 매우 중시된 반면(28%) 서울시가 미흡한 사항으로 그것을 지적한 비율은 5%에 지나지 않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서울시민의 관심과 성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한 수준이라는 인식으로 볼 수 있을까?

5) 월드컵 소외계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표10-1> 전체 응답자의 월드컵 소외계층 참여촉진방안

참여촉진방안	도수	유효도수(%)
홍보/여론조성	162	32%
물질적 동기 부여	89	17%
사회적 기반 제공	251	49%
기타	9	2%

본 조사 항목에서 월드컵 소외계층은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 ‘생업에 바빠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사람’ ‘장애인’ ‘노약자’ 등으로 예시했다.

<표10-2> 일반 응답자 군집의 월드컵 소외계층 참여촉진방안

참여촉진방안	도수	유효도수(%)
홍보/여론조성	55	29%
물질적 동기 부여	37	20%
사회적 기반 제공	91	48%
기타	5	3%

<표10-3> 주부 응답자 군집의 월드컵 소외계층 참여촉진방안

참여촉진방안	도수	유효도수(%)
홍보/여론조성	30	42%
물질적 동기 부여	15	21%
사회적 기반 제공	27	38%
기타	0	0%

<표10-4> 학생 응답자 군집의 월드컵 소외계층 참여촉진방안

참여촉진방안	도수	유효도수(%)
홍보/여론조성	64	29%
물질적 동기 부여	34	15%
사회적 기반 제공	123	55%
기타	3	1%

전체군집에서는 절반 가까이가(49%) '사회적 기반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적극적 홍보 및 여론조성'이 32%, '참여의 물질적 동기제공'은 17%였다. 사회적 기반이란 상시네트워킹/시민교육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전체의 81%가 물질적 유인보

다는 사회적 유인과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저소득집단에서도 월드컵 시민참여 촉진을 위해 물질적 유인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집별로 보면, 일반인군집은 사회기반 45%, 홍보 및 여론 33%, 물질적 유인 19%, 주부군집은 홍보 및 여론 42%, 사회기반 38%, 물질적 유인 19%, 학생군집은 사회기반 55%, 홍보 및 여론 29%, 물질적 유인 15%로 나타났다. 학생들(특히 20대)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반을 가장 중시하고 주부들은 홍보 및 여론을 더 중시한다는 차이를 보였다. 주부군집 중에서도 50대 이상과 중졸 이하 학력집단에서 홍보 및 여론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참고로, 월드컵의 가장 적극적 참여집단이 될 축구동호인단체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바라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적극적 홍보방안 마련 ②일본과 차별되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마련 ③일반시민을 위한 경기시설 확충 ④소외계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 마련 ⑤상향식 의견수렴창구 개설 ⑥(축구)조기교육체계마련...

표현은 다르지만 여기서도 홍보와 사회적 기반확충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월드컵이란 대행사가 사회저변에 제대로 도달치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케 해주는 내용들이다.

한편 월드컵이 시민통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85%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월드컵 개최 자체가 시민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의미있는 결과다. 주관식 응답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는 대체로 '시

민들이 공통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관심을 갖고 단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위 4)에서 응답자들이 월드컵 성공개최의 중요조건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경우는 그것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인식한 결과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월드컵이 갖는 시민통합적 의미를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통합인식은 말 그대로 인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인식상의' 통합을 '현실적' 통합으로 공고히 하는 일이 정책적 과제로 남는다. 그것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월드컵 개최로 인식상의 통합이 고조된 좋은 기회를 항구적 통합으로 승화시키는 전략, 그것이 곧 월드컵을 통한 시민통합전략이다.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상대적 소외계층 확인

2002년 월드컵에 대한 본 조사대상 시민의 주된 태도를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월드컵은 국가발전이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큰 기회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우리가 가장 모자라는 부분은 교통문제/도시환경과 함께 시민의 성원과 시민의식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자원봉사 등 참여보다는 소극적 성원자로 남겠다. 월드컵대회에 소외계층을 참여시키려면 일회성 금전지원보다는 시민네트워크와 같은 상시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 홍보를 해야 한다.”

이러한 총론적 관찰 속에 숨어있는 각론적 징후들은 보다

체계적 정책을 만드는 좋은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정리한 조사결과 속에서 특히 상대적/잠재적 소외(냉담)계층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데 주목해야 한다. 소외계층을 월드컵이라는 큰 잔치의 주인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월드컵이 단순한 체육행사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이벤트가 되게 하고, 그런 사회적 힘이 지속적인 통합의 에너지가 되어 서울시 발전의 장기적 기반이 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1) 경기호감도와 축구호감도로 본 상대적 소외계층

평균 80%로 나타난 경기호감도와 축구호감도를 감안하면 나머지 20%의 비우호 집단만으로 추출한 소외계층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정책적 참고로는 가치가 있다.

이 부분에서 상대적 소외계층은 ①일반인/주부고소득집단 ②주부저소득집단 ③여성이다. 한 마디로, 중산층/고학력 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과 일반인 고소득집단이다. 특히 축구만을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여성이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적극참여계층은 ①중산층 ②일반인저학력집단 ③주부고학력집단이다.

2) 월드컵개최에 대한 평가태도로 본 상대적 소외계층

이 부분에서 상대적 소외계층은 ①고소득집단 ②주부고학력집단이다. 고소득 계층이 상대적 소외계층인 것은 운동/축구경기 호감도의 경우와 일치하나, 운동/축구경기 호감도에서 적극참여

계층인 주부고학력집단이 여기서는 소외계층으로 나타났다.

3) 자원봉사경험으로 본 상대적 소외계층

자원봉사경험을 볼 때 상대적 소외계층은 ①고소득집단(주부 제외) ②고학력집단 ③주부저학력집단이다. 여기서도 고소득 계층은 일관되게 상대적 소외계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참여계층은 청소년, 중산층, 중간학력(고졸), 주부중상/고소득집단이었다. 주부고학력집단과 주부고소득집단은 경우에 따라 적극참여계층도 되고 상대적 소외계층도 될 수 있는 계층임이 주목된다.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 의향을 보면 상대적 소외계층은 ①중간이상 및 고소득집단 ② 40대, 적극참여계층은 주부50대/고졸 학력인 점이 특이하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봉사경험을 갖고 있는 중간이상소득집단이 2002년 월드컵에서는 참여소외계층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 요약결과 일관된 소외계층은 연간소득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이다. 이들이 주요한 정책대상,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홍보와 참여유도정책의 대상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참여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계층이 기본적인 소외계층이겠지만, 이처럼 여유가 있으면서 참여치 않는 냉담계층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5000만원을 고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는 충분히 활용가능한 기준이라고 본다.

월드컵의 경우 소외의 개념은 소외 당하는 것 뿐 아니라 소외하는 것, 즉 무관심이나 냉담까지 포함해야 한다. 고소득의 월드컵 소외계층이 갖는 (상대적)무관심이 월드컵이라는 특정 경기 종목의 행사라는 사실과 관련된 일인지 아니면 국가행사 자체,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한 냉담의 결과인지는 별도의 연구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축구경기 차원의 문제라면 국가체육정책의 틀에서 접근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인 국민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스포츠'로서의 축구가 어떤 계층적 성격 - 서민스포츠로서의 성격 같은 -을 갖는다면 국가체육정책도 계층성을 감안하여 정립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본 조사과정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보인 반응은 대체로 월드컵에 대한 무관심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응답의 가시적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응답태도에 담긴 무관심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운동경기/축구경기에 대한 호감이나 월드컵 개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선언적 평가에만 그치고 '나'와는 관계 없는 행사, '나'는 방관자일 수밖에 없는 행사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번 월드컵은 돈 많이 들여 한바탕 치르고 없어지는 소모성 국가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반복하지만,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는 체계적 홍보, 추진조직 내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재조직을 서둘러야 한다.

빈 면

제 3 장 서울시 월드컵 시민참여 체계 현황

1. 공식체계
2. 비공식참여체계
3. 풀뿌리 시민운동의 현황과 당면과제
4.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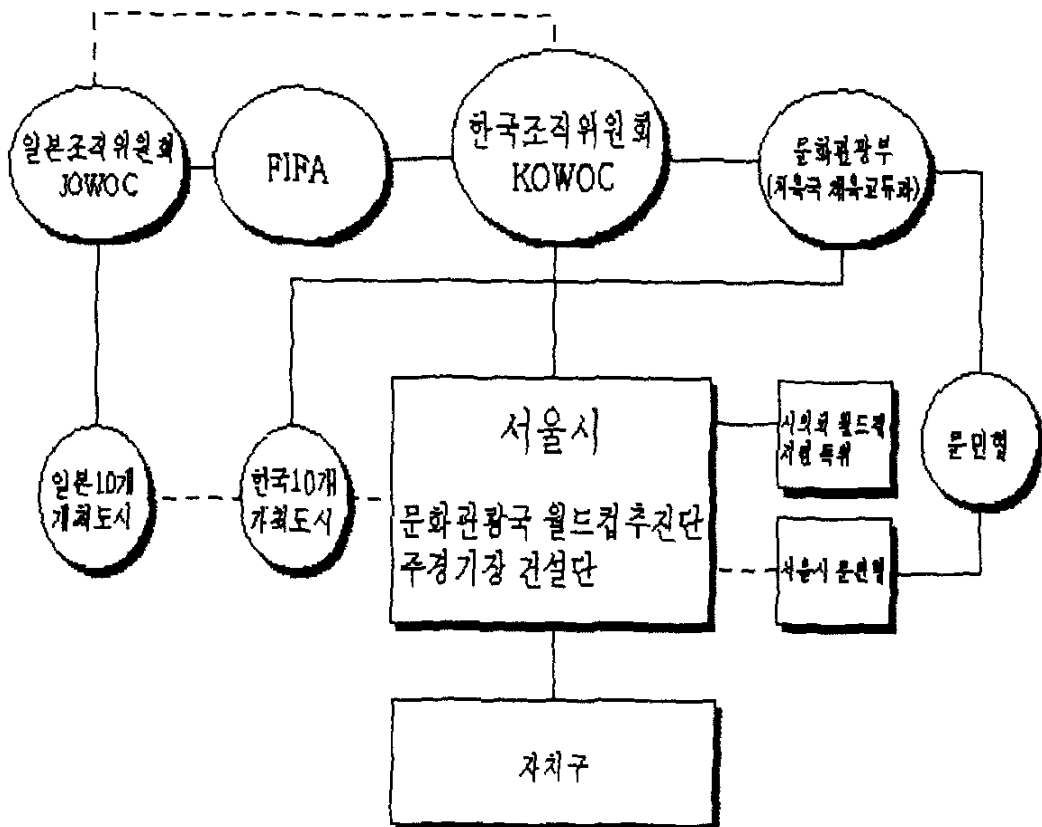
제 3 장 서울시 월드컵 시민참여 체계 현황

본 장은 서울시 월드컵의 시민참여 현황을 분석한다. 월드컵은 올림픽과 달리 기본적으로 국가행사이므로 개최도시 중 하나인 서울시의 차원을 넘는 국가차원의 조직과 참여·동원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의 논의도 서울시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전반적인 조직·연계의 틀에서 행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문화관광부-월드컵조직위원회-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서울시 로 이어지는 공식조직체계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비공식조직체계의 현황을 평가하고자 한다. 공식체계와 비공식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월드컵과 같은 국가이벤트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이고 상시적인 참여채널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비공식체계는 현 상태로는 매우 취약하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서울올림픽처럼 ‘하면 된다’ 식의 하향식 봉사인력동원에 의한 일회성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공식 조직체계

조직도에서 보듯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공식 추진체계는 문화관광부(체육국 체육교류과)-2000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로 약칭)-2002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이하 “문민협”으로 약칭)와 10개 개최도시(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월드컵 조직 체계



문화관광국 월드컵추진단) 등 주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대회운영과 관련한 정책 틀을 제시하고 계도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운영의 실질적인 기능은 조직위와 문민협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월드컵 대회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 체육교류과는 과장을 제외하고 4명(서기관1, 사무관1, 직원2)이다. 조직위, 문민협, 서울시의 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조직위(KOWOC)

협회의 대회운영을 관장하는 조직위는 세계축구연맹(FIFA)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한시적 조직체다. FIFA가 정하는 기준과 조건에 의해 대회를 운영하며, 경기장건설·마케팅·세금·안전과 같은 사항들을 FIFA 기준에 맞추기 위해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조정 역할을 한다. 조직 및 대회운영 재원은 당연히 대부분 FIFA에 의해 충당되며 우리 정부로부터는 인력파견 등 일부만을 지원받는다.

조직위 현 인원은 153명으로 행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파견 나온 인력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회개최 1년 반 전이 되는 금년말부터 대폭적인 인력증원이 있을 계획이다. 프랑스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경우 개최 2년전인 1996년에 113명, 1997년 329명, 개최당년인 1998년엔 594명이었으니 조직위의 현 인력규모는 프랑스의 경우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조직위는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운용에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대회 이후 직원의 재취업문제가 가장 큰 과제다. 그러나 더 어려운 문제는 관료적 조직운영이 갖는 한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운영의 핵심적 결정을 행하는 부·팀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대부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자들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나 의사전달구조가 수평적이지 못하고 다분히 수직적 위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조직내 부서간에도 유기적 협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앞으로 비파견 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하여 500명 이상의 인력규모에 이를 경우 관료적 조직의 문제점들이 더욱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원 이전 조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파견인력과 민간부문의 비파견인력(공채인력)간 유기성 확보와 부서간 업무·정보장벽의 해소는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조직위는 자문위원, 분야별협의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재외동포월드컵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체육계 인사 등 원로자문위원 11명, 분야별 전문가 및 원로로 구성된 자문위원 21명이다. 조직위 국장 및 팀장급이 간사가 되는 분야별 협의회는 8개를 운영하며 분야별로 적게는 9명, 많게는 53명으로 총 152명의 위원이 선정돼 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대회운영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로 모두 10개에 125명이 위촉돼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월드컵후원회는 12개국 19개 지역에 결성돼있으며 주로 전현직 한인회장이 회장으로 있다.

자문위원, 협의회, 위원회, 후원회 등 조직위의 외부협력체계 구성은 일견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실적 가동이다. 특히 사계의 실무전문가로 이루어진 실무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가동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나. 문민협

문민협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2조에 근거하여 1997. 5.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을 고취하는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조직이다.

문민협의 조직도 조직위와 비슷한 관료적 직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앙협의회의 경우 34명인 사무처 인력이 2국 5부 10과

로 나뉘어 있다. 2과로 이루어진 부의 인원이 6명에 지나지 않는 기형적 조직구조다. 다시 말하면 한 부에 간부 3명과 평직원 3명이 있는 전형적인 역피라미드형 조직인 것이다. 간부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견공무원들이다. 관료사회의 직급이 반영되다보니 간부수와 평직원 수가 같은 구조가 된 것이다. 인원수에 비해 부서가 과다히 많은 이런 조직구조는 번잡한 절차라인과 부서간 의사소통장벽 때문에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쉽지 않다.

‘문화시민운동’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문민협이 주 활동은 계몽형 시민캠페인이다. 외국인 친절히 맞이 하기, 에스컬레이터 바로타기 운동, 한줄로서기 운동,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사업 등이 대표적 실적으로 꼽힌다.

문민협은 67개의 단체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관변 의식개혁 단체(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기업단체(경총 등), 민간시민단체, 직능단체, 동호인, 공기업(주택공사 등) 등 다양한 범주의 단체를 망라한 회원구성이다. 단체를 회원으로 확보한 것은 매우 현명한 전략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국을 망라하는 이들 회원단체들을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실질적 동원네트워크로 가동되기엔 지나치게 방대한 회원구성일 경우 자칫하면 단체 대표들 몇 명만이 나서는 일회성 캠페인을 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규모의 시민단체는 명망가 중심, 중앙중심의 하향적 운동과 동원, 회비납부 저조에 따른 재정취약 등으로 인해 현 상태에서 월드컵을 위한 시민참여의 촉매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문민협이 지향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단체회원 전략도 근거를 잃기 십상인 것이다. 제 1 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중앙집권적 시민단체를 다시 중앙집권식으로 묶어서 동원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상기한다. 대안으로는 지역사회에 밀착한 소규모의 풀뿌리 단체나 조직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도 관제적 방식이 아니라 풀뿌리로부터 진정한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풀뿌리 시민단체라는 것 자체가 정의하기 어렵고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데 고민이 있다.

조직위 분야별협의회 (8개)

명칭	구성일	위 원 구 성	주관부서
개최자치단체협의회	99. 2. 23	○공동의장 : 2 ○위원 : 50 ○간사 : 기획조정국장	지방부
식전문화·관광협의회	99. 2. 3	○공동의장 : 2 ○위원 : 19 ○간사 : 식전문화팀장	식전문화팀
보도·홍보협의회	99. 1. 8	○공동의장 : 2 ○위원 : 17 ○간사 : 홍보실장	홍보실
도시환경협의회	98. 12. 45	○공동의장 : 2 ○위원 : 8 ○간사 : 기획조정국장	지방부
경기력향상지원협의회	99. 1. 9	○공동의장 : 2 ○위원 : 8 ○간사 : 경기국장	경기부
마케팅·경제협의회	99. 5. 3	○공동의장 : 2 ○위원 : 8 ○간사 : 사업국장	해외사업부
재외동포참여협의회	99. 2. 12	○공동의장 : 2 ○위원 : 12 ○간사 : 대외협력국장	협력부
종교협의회	99. 5. 24	○공동의장 : 2 ○위원 : 6 ○간사 : 총무부장	총무부

조직위 분야별 전문위원회 (10개)

명칭	기능	인원	존속기간
경기장시설전문위원회	건설공정, FIFA요구사항 확인·점검, 시설 활용도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등	14	'98. 1-'02. 3
잔디전문위원회	잔디종류, 생육연구실험, 시공기술, 시공기술 검토자문, 잔디조성의 기본방향 및 세부계획 심의	9	'98.10-'02. 7
정보통신전문위원회	정보통신(통신, 정보·전산, 전자등) 기본계획, 한·일 정보통신협력방아능에 관한 자문(통신, 전산의 2개 분과위원회 운영예정)	18	'98.10-'02. 7
마케팅전문위원회	마케팅 기본방향 및 FIFA협상 대책등에 관한 자문	12	'98.10-'02. 7
디자인전문위원회	엠블렘·마스코트등 대회상징물 제작기본 방향, 공모작품 선정등에 관한 심의·자문	12	'98.10-'02. 7
자원봉사자전문위원회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기본방향, 모집, 교육, 운영, 후생, 복지등에 관한 자문	11	'98.10-'02. 7
물자관리전문위원회	물자관리운영 기본계획, 물자수급관리계획, 물자확보/조달/처분 등에 관한 자문	12	'98.10-'02. 7
경기운영전문위원회	대회기간, 경기시간대 배분 등 경기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12	'99. 4-'02. 7
식전문화행사전문위원회	행사기본방향, 기본주제선정 등 식전·문화행사전반에 관한 자문	14	'99. 5-'02. 7
수송전문위원회	수송수단확보/운영, 교통소통대책등 대회관련 수송/교통 전반에 관한 자문 및 협의	11	'00. 7-'02. 7

문민협 회원단체현황

분류	단체명	대표	
시민 단체	봉사	볼런티어21	이명현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이재정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유주영
	교통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여성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김춘강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이윤자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조선형
	도덕	공동체의식개혁국민협의회	김지길
		홍사단	이대형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이정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강문규
		신사회운동선운동연합	서영훈
	환경	자연의 삶을 사는 벗들의 모임(자연의 벗)	이지은
	청소년	한국청소년상담원	이혜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박건배
		한국청소년마을	우옥환
		한국청소년연맹	이철옥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조수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이원희
	스포츠	축구사랑모임	김홍국
		생활체육서울시여성자전거연합회	전봉순
	복지	한국장애인고용봉사회	이학수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사회복지법인 원 봉공회	최순자
	학술문화	성균관	최창규
		2002월드컵문화시민예술단	김홍국
		백두산문화회	김윤호
		유도회	이해문
		전국문화원연합회	이수홍
(사) 사물놀이 한울림		안숙선	
종교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지덕	
	2002월드컵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김준근	
교육단체	학교	남서울대학교	공정택
일반기업		나드리인터내셔널	정기호
		쓰리텍정보통신(주)	심규성
		에버랜드	허태학
		월드컵마케팅포럼	김필립
		한국공항공단	김건호
		(주)광보당	윤홍여
		(주)인풍	유대우
		(주)국전	윤병호
		(주)삼화광고	이명수
		(주)광인기업	김용희

분류		단체명	대표
금융단체		전국은행연합회	류시열
		중소기업은행	이경재
		한국산업은행	이근영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정대근
공공단체	학술문화	대한민국예술원	차범석
	정신	한국자유총연맹	양순직
	교통	교통안전공단	이승일
	기업	대한주택공사	조부영
협회, 조합		대한출판문화협회	나춘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황의두
		전국경제인연합회	김각중
		전국극장연합회	강대진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창성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재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한국음식업중앙회	윤광석
		한국청소년회의소	최용준
		대한서울상공회의소	박용성
		대한약사회	김희중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문봉철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이칠용
		한국주간신문기자협회	김용환
		한국상록회	이지홍

다. 서울시

서울시 월드컵 공식추진체계를 구성하는 조직은 문화관광국 내 TFT인 월드컵추진단과 경기장 등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주경기장 건설단이다. 주경기장인 상암구장이 위치한 마포구 등 25개 자치구도 공식체계를 구성하나 아직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치 않고 있다.

이 중 월드컵추진단은 문화관광국 5개과중 관광과(5개 팀)과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실(6개 팀)을 산하에 두고 임시로 구성된 조직이다. 기존의 시행정조직 일부를 월드컵조직으로 새롭게 명명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주경기장 건설단을 제외하고 11개 팀 67명이 가동되는 상당한 규모다. 문제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행정업무를 넘어서는 월드컵 관련 기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배치일 것이다.

2. 비공식 참여체계

가. 자원봉사조직

2002월드컵 자원봉사자는 조직위와 개최도시에서 각각 모집 관리한다. 조직위는 주로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직접 대회운영 분야에 한정된 반면 개최도시는 대회운영에 직접 소요되진 않으나 간접적 자원봉사가 필요한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한다. 그러나 조직위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은 개최도시로 배정되기 때문에 한 도시의 한정된 자원봉사자원을 감안하면 중복의 소지도 큰 게 사실이다.

조직위의 자원봉사자는 아직 수요조사단계다. 대회와 직결되

는 분야이고 아직 개최가 2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이다. 대회개최 3년전인 1999년 4월과 2000년 6월 2차에 걸친 자원봉사자 수요조사를 통해 40개 직종 12,746명의 자원봉사자가 소요됨을 확인한 바 있다. 분야별로는 경기장안전이 44%로 다수를 점하고 수송(20%), 의전(8%), 시합운영(7%), 입장권관리(5%), 방송(5%) 등의 순이었다.

98 프랑스 월드컵은 자원봉사자에 의한 대회로 불릴만큼 좋은 사례다. 비공개로 모집한 12,000명의 자원봉사자는 조직위 직원수준의 능력과 성의로 대회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 조직위의 자원봉사예상규모는 프랑스와 유사하나 프랑스와는 달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실 자원봉사팀이 관리하는 새서울자원봉사센터에서 대부분 50세 이상의 노년층인 약 3만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놓고 있다.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은 시민대학의 틀 속에서 시민의식교육 형태로 진행중이다. 인적 구성면에서 조직위 자원봉사자와 서울시 자원봉사자간의 위계적 차이가 날 소지가 큰데,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식조직과 자원봉사자간 연계가 단순한 모집-교육관계를 넘어 자원봉사자들이 추진조직의 한 축이 되기엔 요원하다는 현실이다. 이것은 자원봉사 자원의 문제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해 진정한 가치부여를 하지 않는 사회환경이 가장 큰 문제다. '가진건 시간만 있는' 사람들만을 잠재적 자원봉사자로 고려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활용의 의의, 나아

가 사회적 동원의 의의를 반감시킴으로써 월드컵대회의 성공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숫자만 채워 적당히 교육시켜 한번 치른다는 자원봉사동원개념은 지양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충실한 자원을 확보하되 필요하다면 예산도 크게 투입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 자원봉사자는 축구시합 진행과 직접관련이 적은 만큼 서울을 알리는 얼굴로 활용한다는 전략적 홍보의 차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충실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서울시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나. 축구동호회

1) 서울지역에 있는 축구팀은 총 134개, 선수 수는 3,727명에 이 름. 이들 축구팀은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현역 선수들로 구성 되어 있다.

<서울지역 축구팀 현황>

구분		합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합계	팀수	134	52	42	27	10	3
	인원	3,727	1,260	1,265	831	302	69
남	팀수	127	50	38	26	10	3
	인원	3,594	1,222	1,192	809	302	69
여	팀수	7	2	4	1		
	인원	133	38	73	22		

한편 서울시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비전문적 축구동호회는 총 388개에 회원수 24,490명임. 각 구별로 국민생활체육 축구연합회가 있으며, 이들 연합회로 구성된 서울시 축구연합회가 구성되어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서울시 축구연합회 구성현황>

연번	구별	축구회	회원수	연번	구별	축구회	회원수
	합계	388	24,490	13	서대문구	13	930
1	종로구	12	782	14	마포구	18	1,094
2	중구	9	527	15	양천구	17	1,123
3	용산구	13	811	16	강서구	19	1,427
4	성동구	17	1,005	17	구로구	17	870
5	광진구	10	714	18	금천구	12	670
6	동대문구	12	684	19	영등포구	24	1,379
7	중랑구	14	1,222	20	동작구	11	595
8	성북구	22	1,282	21	관악구	25	1,741
9	강북구	12	690	22	서초구	15	670
10	도봉구	8	520	23	강남구	11	468
11	노원구	19	1,279	24	송파구	22	1,346
12	은평구	17	1,126	25	강동구	19	1,535

축구연합회 활동은 공식적으로 경기대회, 정기 이사회, 기타 연합회 기획행사 등이 있으며, 주말, 휴일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인 축구모임을 갖고 있다. 우선 공식적인 축구행사를 보면 구 차원에서 최대 연 4회 대회개최(구청장기 대회, 구연합회장기 대회, 명예회장기 대회, 생활체육회장기 대회)하고 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시장기 대회, 축구연합회장기 대회 등이 열리고 있다.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대회로는 동양화재사장기 대회가 있음. 정기모임은 1달에 1회정도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구 축구연합회장이 서울시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구별 연합회 활동을 공유하고, 서울시 연합회 차원의 기획사업 기획 및 집행을 협의, 인준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축구연합회 재정은 회비, 후원금, 이사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각 경기대회가 있을 때 서울시, 각 구청, 민간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축구연합회와 각 동호회들은 월드컵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나, 월드컵 홍보 및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마련해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월드컵 홍보 차원으로 '서울시연합회장기배 어린이 축구대회'를 계획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2) On-line 축구동호회 : 온라인 상의 사이버 축구동호회의 경우 그 수가 매우 많이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포털검색사이트(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축구동호회를 표본으로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였다 <표 참조>.

사이버 축구동호회는 사이트의 성격 상 크게 1) 축구관련 정보 제공 및 게시판 운영 사이트 2) 선수, 팀 팬클럽 3) 친목 축구 팀 홈페이지 4) 2002 월드컵 관련 사이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Cyber 축구동호회 현황 (네이버naver 검색결과)

	축구관련 일반	선수 팬클럽	동아리	2002 월드컵관련
수	43	80	54	37

- 축구동호회의 유형 및 주된 활동

선수팬클럽을 제외하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축구동호회의 유형과 주된 활동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① 축구 관련 일반적인 정보전달 중심으로 진행. 자체적인 기획 행사나 경기 운영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축구경기 관전 평 혹은 선수 개인에 관한 신변잡기에 관한 정보공유

(사례 : 신비로 축구동호회 www.shinbira.com/@goal) :

축구, 한국대표팀, 월드컵 소식 등 축구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 동영상 자료 및 최근 신문기사 등을 담고 있어 내용면에서는 매우 충실한 편이다. 하지만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한다든가 채팅과 같은 쌍방향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약점이 있다.

② 경기알선 및 사이버 축구동호회 대회를 개최하는 사이트(각 축구동호회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

(예 : 천리안리그 user.chollian.net/~zsgoal2, A-league www.a-league.co.kr)

A-league :

사이트에 등록된 팀 회원들에게 무료 홈페이지와 다른 팀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off-line 상에서 게임을 주선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팀은 전국적으로 14개 팀이며, 개인회원은 14인이어서 참여가 아직은 미진한 편이다. 일반적인 축구정보와 풋살게임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팀이 아직

은 적고, 정보량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며 월드컵에 관해서도 경기장 소개 외 다른 정보는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천리안리그 축구동호회 :

A-league와 같이 팀 간 게임 주선이 주된 목적이다. 홈페이지가 있는 등록팀은 link기능을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천리안 리그를 열어 등록된 아마추어팀 간의 경기를 공식화하고 있다(현재 3회 대회를 준비중). 기타 축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고, 일반 접속자들을 위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접속자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월드컵에 대한 정보제공도 전무하며, 축구 관련사이트 link가 되어 있지 않다.

③ 축구팀 홈페이지로 회원들간의 정보공유, 시합안내, 타 팀의 시합신청을 받아 경기진행(예 : Black cats bfc.ua.to/)

실제 축구경기를 하는 아마추어 축구동호회의 홈페이지다. 동호회의 정식회원 주축으로 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있다. 게시판을 통해 접속하는 타 팀이 시합요청을 하면 같이 경기를 펼치는 형태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구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명 축구관련 사이트와 접속할 수 있게 link 기능도 제공된다. 하지만 팀 내부 홈페이지인 관계로 접속자의 참여 폭이 좁으며(직접 팀에 가입하지 않으면 참여가 사실상 힘든 구조로 되어 있음), 월드컵에 관한 정보도 매우 빈약하다.

3. 풀뿌리 시민운동의 현황과 당면과제

본 내용은 1999년 시민단체전략개발워크숍에 참가한 시민단체 실무자 6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주최 “21C 풀뿌리 시민운동 활성화전략창출워크숍” 자료집)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물론 이들 조사대상 시민단체들이 모두 풀뿌리단체의 범주에 속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위에서 말한 전국규모의 중앙집권적 하향적 단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활동이 대부분 지역별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풀뿌리에 가까운 단체들로 간주해도 좋을 것 같다.

가. 기본현황 - 회원, 상근인력, 예산

회원규모로 본 분포는 500명 이상이 37.4%, 101-500명 미만 이 33.9%, 100명 이하가 28.8%로 나타났다. 평균 회원수는 12,045명이었다. 상근인력은 평균 9명이지만, 몇 몇 대규모 시민단체를 제외하면 절반 가량이 5명 미만이다. 한편 예산면에서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45%의단체들이 오천만원 이하의 예산규모로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평가 및 과제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평가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조직”과 “혁신노력” 부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시민단체들은 기본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 장 단기 활동계획도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단체활동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회원의 참여와 활동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회원관리체계와 의사소통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들은 혁신의 욕구가 강하면서도 그것을 추진할 노력, 전문적 훈련이나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시민단체 활동의 지원은 혁신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이라도 본다. 특히 단체의 목표체계 및 장단기 활동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훈련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풀뿌리 시민단체의 분야별 기능별 문제들

1) 지역시민운동단체

-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시민의 인식부재
-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 한계(소수 중앙조직에 용역형태지원)
- 시민운동단체의 집단이기주의와 폐쇄성(선의의 경쟁 및 연계 부재)
- 상품성과 정체성을 갖춘 프로그램 개발능력 부재
- 바닥 수준의 재정자립도
- 회원, 회비관리 및 자원봉사자 운영체계 부족
- 현안에 쫓기는 실무(재충전, 자기배발 기회 부재)

2) 주민자치관련 시민단체

- 정치적 행정적 권리에 대한 시민의식 및 정부의 인식 부재
- 단체 내부의 동지에 결여
- 단체실무자의 관료화, 정체성과 전망 결여

3) 지역복지관련 시민단체

- 복지기관과 인식/지향 차이(복지기관 - 시혜 · 자선의 관점)
- 기부금 문화 부재
- 정부보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복지기관 운영

4) 여성운동관련 시민단체

- 여성의 참여 저조
- 여성단체간 영역중복 및 경쟁(의견통일 불가)

5) 청소년관련 시민단체

- 문화공간 절대부족
- 프로그램 개발부족
- 부모의 참여반대
- 청소년의 무관심(관심영역의 협소)

라. 풀뿌리 시민단체간 네트워킹 문제

- 개별단체의 정보화 수준 열악(인프라 및 정보공유부재)
- 회원 중복에 따른 갈등과 경쟁
- 회원이 주체가 못 되는 참여구조
- 단체이기주의
- 상근자의 사회적 지위저조에 따른 연계 적극성 부족
- 상근자의 선민의식

4. 평가 - 진단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서울시)월드컵 시민참여는 주체간 체계적인 연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각개약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 결론이다. 문화관광부-조직위-문민협의 공식 체계는 각각의 조직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동호회 등의 비공식 체계도 공식체계와 연계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비공식체계 내부간 연계도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시민참여의 실질적 기반이자 촉매가 돼야 할 시민단체도 '시민없는 시민단체'로 형해화함으로써 운영자체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 월드컵 개최까지 2년 가까이 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상황이 닥치면 정신이 번쩍 들어 뚝딱 해치우는 우리 국민의 기질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준비상황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것이 한 번 치르고 끝나는 잔치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월드컵은 그렇게 간단히 스쳐보내기엔 너무 가까운 시민참여, 사회통합의 계기다.

대회가 아직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공식체계의 가동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 상태만을 놓고 연계부족을 거론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인식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여기서 일본의 사례는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민간단체 및 기업으로 이루어진 2002년 FIFA월드컵 요코하마 개최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개최추진위원회는 서울시문민협과 비교할 수 있는데, 순수 민간단체라는 점, 그리고 개최유치 이전부터 자발적인 시민주도로 조직됐다는

점에서 관의 계도에 의해 조직·운영되는 문민협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개최추진위원회는 시민활동, 교통수송, 홍보이벤트관광 등 3개 부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시민활동부회는 역시 자발적 시민조직인 월드컵시민의모임과 연계되어 있어서 넓은 저변의 시민참여가 시작단계부터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시즈오카현의 경우 개최추진위원회는 지사가 회장을 맡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민관조직이며 위원회(부회)도 6개를 운영하는 등 요코하마보다 광범위한 스케일에서 시민단체를 공식조직에 포함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월드컵시민의모임도 저변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요코하마는 공공추진조직과 민간추진조직간 연계, 시즈오카는 민간추진조직을 공공추진조직으로 편입한 형태로 각기 다른 민-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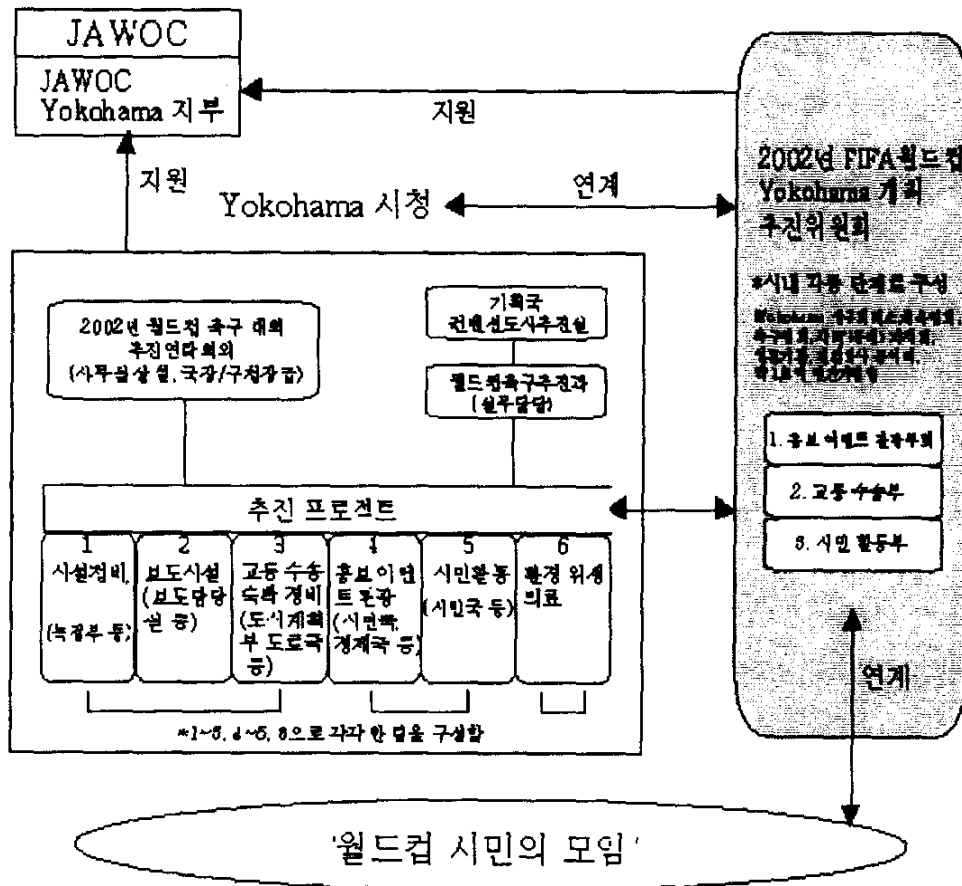
역시 주목되는 것이 요코하마시의 월드컵시민의모임이다. 모임의 주 목적은 월드컵을 계기로 지속적인 시민통합과 단결을 추구하는 시민참여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모임에는 부녀자, 청소년, 노조원은 물론 시공무원도 절반이나 참여하여 명실공히 순수한 자발적 시민조직으로 운영된다. 연령별로 1만원-3만원의 입회비를 납부케 함으로서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요코하마는 동경의 베드타운으로 도시의 아이덴티티나 시민간 결속이 쉽지 않은데도 역으로 월드컵을 계기로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아이덴티티를 유발함으로써 시민의 융합과 단결을 도모코자 하는 노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민조직 스스로 월드컵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자원봉사모집도 행함으로써 시정부가 따라서 지원토록 하는 양상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시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시민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시민조직의 자생력을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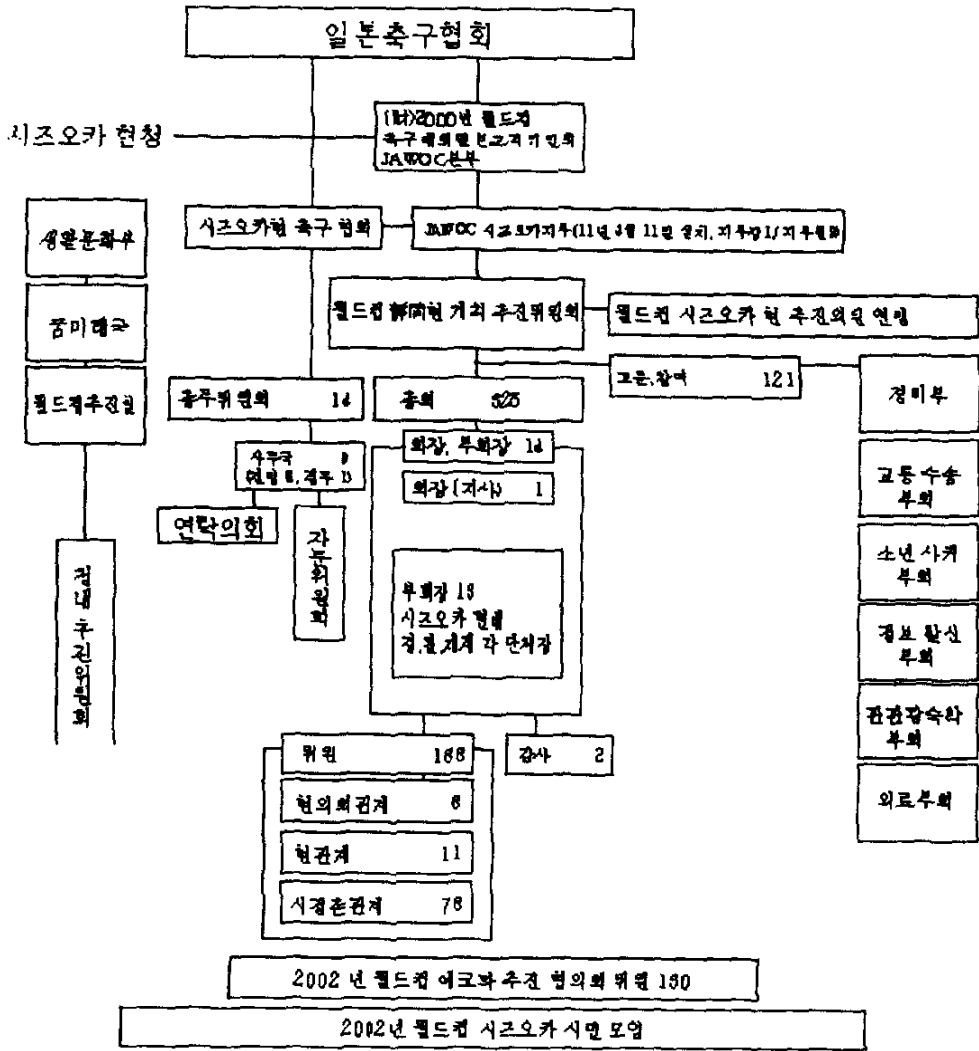
시민의 참여인식을 북돋우고 시민단체의 역할을 활성화할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앞으로 남은 1년 9개월이란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다. 시민참여의식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고양해야 하며, 동시에 상시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가동으로 일상화시켜야 한다. 현 상태에서는 홍보와 교육에서 매듭을 풀 수 있는 효과적 대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성화도 결국은 시민참여의식의 고양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므로 참여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단체를 동원하기 위한 하향적 시도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재정이 열악하고 시민참여도 약한 풀뿌리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월드컵에 가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조기축구동호회와 반상회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 현 상태에서 시민참여의 출발점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성급한 결론일지 모르지만, 결국 가능한 대안은 ① 월드컵을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참여의 기운을 고조시키고 참여의 저변을 넓히며 ② 그런 기반에서 월드컵에 대비한 시민조직(예컨대 시민의 모임)을 구성하도록 측면지원하며 ③ 월드컵 시민조직(모임)이 향후 서울시의 자발적 시민참여·시민동원 네트워크가 되도록 발전시키는 식의 단계적 접근일 것이다.

Yokohama 월드컵 추진 조직 체계



시즈오카현 월드컵 준비 조직 체계



빈 면

제 4 장 처방 :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대안

1. 유기적인 공식체계의 확립과 비공식체계 통합
2. 시민참여체계 강화

제 4 장 처 방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

1. 유기적인 공식조직체계의 확립과 비공식체계 통합

가. 공식조직간 연계를 위한 제안

공식체계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월드컵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림의 재조직개념도를 중심으로, 효율적 공식조직연계의 대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직도의 이름은 아마도 시민참여를 위한 재조직 개념도가 될 것이다. 3장에서 살펴본 일본사례 중 요코하마보다는 시즈오카 모델에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비공식추진조직을 공식조직으로 흡수하여 민관으로 구성된 서울시월드컵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는 것이 대안의 골자라 하겠다. 시민의모임과 같이 구체적인 자발적 시민동원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우선 다양한 시민사회 여러 단체 관계자를 공식체계에 편입하여 시작하는 수 밖에 없기에 요코하마보다는 시즈오카 모델이 서울에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다. 먼저 비공식 추진조직이 드러나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한 시민에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2절에서 상세히 언급한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했거나 추진예정인 월드컵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한다는 획기적 결단이 필요하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 진정한 참여의

식을 갖고 들어와야만 위원회가 관주도의 단순행정조직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월드컵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시장(또는 시의회의장)

부위원장 - 서울시 체육회장, 서울시축구협회장, 서울시상공회의소장, 마포구청장 서울시의회 월드컵지원특위위원장, 자원봉사자 대표

사무총장 - 지역사회시민단체 대표 사무차장 - 지역사회시민단체 대표

사무국 - 시민단체 실무자 20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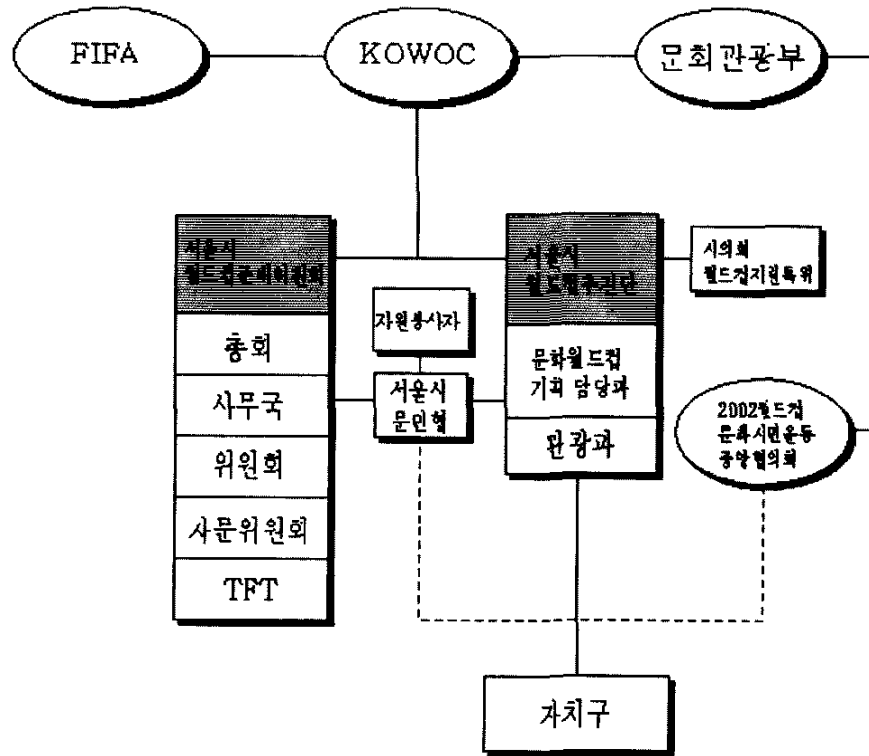
위원회 - 홍보, 시민, 교통/환경, 문화/관광 등 4개 위원회(비상근 위원장은 각분야의 실무전문가로 위촉. 위원규모는 10인 내외로 하며 간사는 사무국 직원으로 보임)

총회 - 500명 대의원으로 구성(각 구별 20명. 연령별-지역별 안배)

자문위원회 - 시민단체대표자 및 여론주도층 인사 30-50명 규모

TFT - 서울시 국장급 1명(팀장), 민간기획전문가 및 학자 5명 내외

서울시 월드컵 재조직 개념도
Organizational Remapping for Worldcup 2002 Seoul



서울시 월드컵준비위원회 사무국과 4개 위원회는 서울시의 월드컵전담조직인 월드컵추진단과 상시 협력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업무채널의 공유는 물론 사무공간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문위원회는 전국규모 시민단체 대표들을 비롯한 여론주도층 인사로 구성함으로써(총선연대대표부와 같은 구조) 시민의 관심과 참여동기를 높일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특정사안보다는 포괄적 주제나 이슈에 대한 집담을 통해 준비위원회활동에 대해 전반적 조언을 하도록 한다.

TFT는 준비위원회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 모니터링과 방향제시, 특별이벤트 구상, 조직위-시민

협 등 관련주체 활동분석 및 정보제공, 국내외 각급기관과의 협력분야 발굴 등이 주 역할이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여러 추진주체간 사이협력 채널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는 어떤 한 주체가 주도적으로 협력을 이끄는 형태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도 서울시 월드컵준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타 추진주체 및 한일개최도시의 추진동향과 결과를 파악하여 정보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준비위원회의 중심적 위치도 확립될 뿐 아니라 공식주체간 협력, 나아가 비공식추진주체의 포용도 한층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개최도시로서 서울시가 갖는 국내외적 위상을 고려할 때, 준비위원회가 원활히 가동되면 추진주체간 유기적 협력관계도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다.

2. 시민참여체계 강화

가. 대시민 월드컵 홍보 체계화

1) 타깃별 차별홍보 : 핵심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전략적 홍보

대시민 월드컵 홍보는 월드컵의 의의가 단순히 축구경기개최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와 관광, 나아가 국제교류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계기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88올림픽이 '한국(Korea)'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제 2002월드컵은 '서울(Seoul)'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을 알리는 일은 누구보다도 서울시민들 자신의 역할이 크다. 시민들 스스로가 월드컵을 '나의 행사'라고 인식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할 때 서울홍보 및 시민월드컵으로서의 의미가 되살아 난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시민 월드컵 홍보는 우선 그 타겟에 따라 차별적인 홍보방식이 필요하다. 그 타겟은 크게 '핵심집단'과 '소외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핵심집단에 대한 홍보

'핵심집단'은 축구에 관심이 많은 축구애호집단으로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의 핵심타겟 집단이다. 이들 핵심집단이 적극적으로 월드컵에 참여할 때, 전체적인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핵심집단으로는 '조기축구회'와 '축구동호회'집단을 들 수 있다. 이들 집단은 평상시 다양한 형태의 축구활동을 일상화해온 집단으로서, '축구문화의 저변확대'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핵심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의 방식으로는 우선, '붉은 악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월드컵을 만들어나간다"는 자부심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홍보 및 봉사 등 월드컵 자원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조직위, 문민협이 발간하는 뉴스레터나 홍보물을 조기축구회나 축구동호회에 배포함으로써(On-line, Off-line

모두)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지속·증폭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통신 및 인터넷 동호회에는 활용가능한 컴퓨터 파일을 월드컵 전까지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축구대회나 축구관련 행사 등 서울시축구연합회 소속 축구동호인 모임을 활용하여 선수 팬사인회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월드컵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나) 소외집단에 대한 홍보

소외의 개념과 소외계층에 대해선 제 1, 2 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제 2 장에서 확인한 바 있는 상대적 월드컵소외계층, 즉 고소득집단과 여성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시급하다.

축구경기의 계층성도 홍보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축구경기의 계층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조기축구회 등 축구를 즐기거나 관람하는 계층이 대부분 중산층 이하일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큰 홍보없이도 월드컵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지를 갖고 있고 애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축구경기에도 관심이 적을 고소득층에 어필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소득집단이 월드컵 기간 중만이라도 골프장에 가기보다는 축구관람에 더 의의를 느끼거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싶도록 동기와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의 홍보가 시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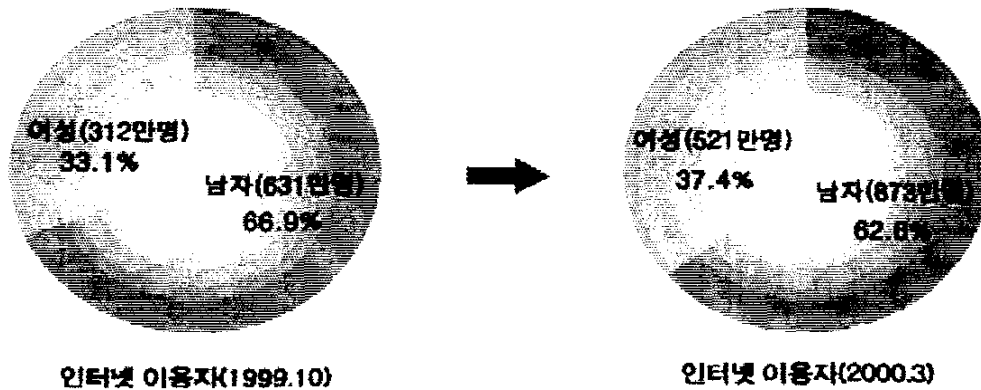
특히 이들 소외계층들은 축구 자체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가 단순히 축구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홍보의 초점에 두어야 한다. 문화월드컵, 시민월드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월드컵

경기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문화행사, 관광활성화, 시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 인터넷 홍보의 중요성

가) 인터넷 열기

2000년 8월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1394만명이고, 월 평균 40만명씩 늘어가는 추세여서 2000년말이면 국내인구의 50%인 20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도 2000년 현재 시민의 절반이 넘는 600만명이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그림 12 인터넷 사용자수

서울시민의 인터넷 열기는 세계 최고수준이고 인터넷 인프라 역시 세계 상위권이다. 이러한 인터넷 활용기반은 공동개최국인 일본과의 경쟁에서 가장 우위를 지니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사례는 인터넷이 월드컵 홍보에 열

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올림픽 공식 사이트인 “www.olympic.com”의 하루 접속 건수가 8억에서 9억명에 달했고, 전체 방문자 횟수는 총 97억회나 되었다. 시드니 올림픽 대회 공식 사이트인 ‘www.gameinfo.com.au’의 경우도 하루 평균 100만회의 접속건수를 이루었고, 경기기간 중이었던 9월 26일엔 하루 최다 접속건수인 8억7천4백4십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선수촌에 마련된 ‘서프색’이라는 인터넷 카페는 하루 평균 1,300여명이 찾는 가장 인기있는 장소로 부각하여, 이전 올림픽까지 선수촌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전자오락실을 제칠 정도로 인터넷 붐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나) 최적 홍보수단으로서의 인터넷

인터넷의 가장 큰 속성은 정보의 ‘신속성’, ‘파급성(동시다발성)’, ‘지속성’, ‘멀티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의 효율성’, ‘사회·공간적 통합성’ 등 크게 여섯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성이 크게 극복되어,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신속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많은 정보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그 효과 또한 지속적이다. 또한 인터넷 대화방이나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멀티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공간적인 장애가 없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시민계층들을 함께 네트워킹할 수 있고, 현실공간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들도 인터넷망에서는 평등한 참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인터넷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인터넷을 홍보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홍보의 차원에서 보면 인터넷은 '예산절감효과'와 '쌍방향홍보효과'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사이버공간 상에서 정보를 흐르게 만드는 것이므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자우편을 통해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여부 확인이 용이하고, 홍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창구가 될 수 있어 쌍방향홍보수단이 된다.

3) 인터넷 자원활동가(인터넷 홍보요원) 육성

가) 인터넷 자원활동가의 역할 및 의의

인터넷 자원활동가는 서울시민들에게 월드컵 홍보자료들을 전자우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동기를 유발하는 사이버상의 홍보대사(이른바 인터넷 홍보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넷 자원활동가는 인터넷의 속성상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홍보를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이나 해외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소외계층들도 쉽게 인터넷 자원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다.

나) 여성 인터넷 자원활동가의 활성화

특히 월드컵 소외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성'의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여성인구를 인터넷 홍보요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00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약 1640만명이고, 그 중 여성이용자

의 비율이 42.4%에 이르고 있다. 여성 이용자수는 2000년 3월말 521만명에서 현재 694만명으로 33.2%나 증가하였고, 그 비율도 33.1%(99년 10월) -> 37.4%(2000년 3월) -> 42.4%(2000년 8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인터넷 이용자를, 인터넷자원활동가로 특히 주부를 대상으로 한 주부인터넷자원활동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 인터넷 자원활동가의 유형

인터넷 자원활동가는 그 소속에 따라 크게 '서울시청 인터넷 자원활동가', '시민단체 인터넷 자원활동가', '축구동호회 인터넷 자원활동가', '개인 인터넷 자원활동가', '서울거주 외국인 인터넷 자원활동가' 등으로 구분한다.

● '서울시청 인터넷 자원활동가'

서울시에 소속되어, 시민단체와 축구동호회 자원활동가와 개인 자원활동가, 외국인 자원활동가에게 홍보물을 전자우편으로 전달해주고, 그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종합 창구' 역할을 한다. '공익근무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시민단체 인터넷 자원활동가'

시민단체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서울시 인터넷 자원활동가로부터 홍보물을 메일로 받아,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회원메일등을 통해 홍보물을 전달하고,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인터넷 자원활동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축구동호회 인터넷 자원활동가'

축구동호회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서울시 인터넷 자원활동가로부터 홍보물을 메일로 받아, 자신이 속한 축구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회원메일 등을 통해 홍보물을 전달하고,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인터넷 자원활동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개인 인터넷 자원활동가'

시민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시민으로서, 서울시 인터넷 자원활동가로부터 홍보물을 메일로 받아, 시민단체, 축구동호회, 외국인단체를 제외한 일반시민이나 일반시민모임,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인터넷 자원활동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원활동가 인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임.

● '서울거주 외국인 인터넷 자원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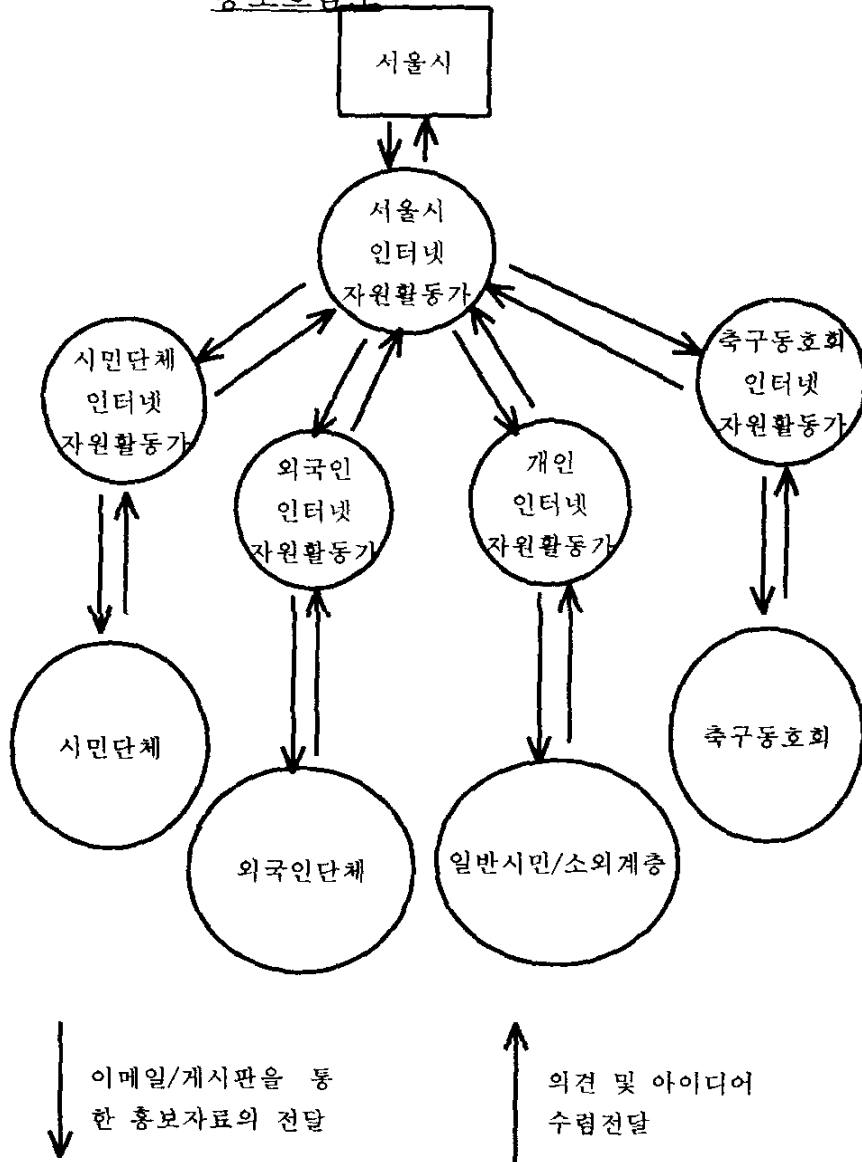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서울시 인터넷 자원활동가로부터 홍보물을 메일로 받아, 자신의 국가나 자신이 속한 외국인 단체 및 모임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해 홍보물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인터넷 자원활동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라) 인터넷 자원활동가의 조직 및 운영

인터넷 자원활동가의 조직 및 운영은 서울시 월드컵추진단

홍보기획팀, 자원봉사팀, (가칭)서울시월드컵준비위원회 TFT 및 홍보위원회, 시민위원회 등이 연계·협력하여 최적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네트워크와 축구동호회네트워크, 서울시홈페이지 공모 등을 통해 인터넷 홍보요원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인터넷 자원활동가를 통한
홍보흐름도



4) 사이버 축구동호회 연합(가칭) 결성 및 지원

축구동호회를 통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동호인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서울시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는 연합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대규모 통신 내의 사이버 축구동호회장이나 웹마스터간 협의마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축구동호회 연합'(가칭)을 결성하고, 이들을 서울시 월드컵 홈페이지와 연계시켜,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준다.

월드컵 대표선수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대표선수라면, 사이버 축구동호회 연합은 온라인 상에서 월드컵을 홍보하고 응원하는 사이버축구전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을 통해 사이버축구 게임 등 다양한 참여이벤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5) 서울시의 역할

이상의 대시민월드컵 홍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주도적으로 행해야 한다.

가)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축구관련 동호회 조직 현황 파악

나) 인터넷 자원활동가 모집, 교육, 운영 및 관리

다) 홍보자료 준비, 제공 및 시민의견 수렴 반영

라) 인터넷 자원활동가 인센티브 방안 마련

예)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마) 시민단체네트워크, 축구동호회네트워크, 국내거주외국인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행정지원

나.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시민교육이 과거 계몽주의나 권위주의 시대에 실시됐던 공민교육이나 국민(윤리)교육과 혼동돼선 안된다...근래 유행하는 신지식인 교육과 같은 것은 차세대국민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사회교육들이 시민들을 교육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여 시민교육이 될 수는 없다. 교육의 성격은 그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전재경. 1999. “국민교육·사회교육·시민교육의 차별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주최 세미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자료집에서 인용).

2002년 월드컵 대회는 비단 대화자체의 운영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즉 월드컵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대회 관람과 더불어 서울시민의 생활전반을 체험하는 장이다.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문화 서울’ 건설은 비단 월드컵을 계기로 도출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본 한국은 여전히 무질서하

고, 불친절한 낙후된 제 3세계로 비취지고 있다. 따라서 '맞이하는 월드컵', '문화시민월드컵'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하며, 시민교육 시스템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계몽하고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교육의 내용은 질서계몽과 같은 단순한 의식개혁을 넘어, 한편으로는 월드컵의 조직과 진행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애착을 북돋울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한다. 자신이 서울시민이라는 주인의식 없이는 자원봉사나 간접참여도 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외국, 특히 참가국에 대한 지식과 문화적 이해를 돕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것은 주한 외국대사관이나 문화원과 협력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역사-지리-문화-자연을 주제로한 시민퀴즈를 상설이벤트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아울러, 서울시민으로서의 삶과 관련하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만 교육의 흥미를 더할 수 있다. 시민교육은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 시민운동의 동력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 중심의 기존 교육 교재에서 과감히 탈피, 다양한 형식의 교재개발이 필요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서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2002년 서울월드컵'이란 제목 하에 교육홍보교재를 편찬하여 서울의 문화관광 명소, 숙박, 문화행사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시민들이 서울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게 하며, 시민 모두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가 될 수 있게 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직능별 교육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각 직능단체가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해 서울시 차원으로 현황 파악 조차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기존 각 직능단체 교육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개선방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능관련 종사자들이 일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택시기사를 위한 영어회화 테이프 제작, 배포하여 운전 중에도 영어회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교육방식에서도 교실교육뿐 아니라 축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운동장 교육까지 포함하여 현장감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직접 축구경기를 하는 프로그램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개발된 교육내용은 시민대학, 반사회,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자치구문화회관 등을 통해 표준화한 프로그램으로 상시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킨다. 여론 파급력이 큰 반사회에는는 순회강사의 개념을 도입, 노인정이나 동사무소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 활용가능한 시민단체 확인 및 활용

민간시민단체의 참여는 기존 관 주조의 사업 관행을 탈피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민단체가 지니고 있는 영역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시민단체는 현재 문민협에 참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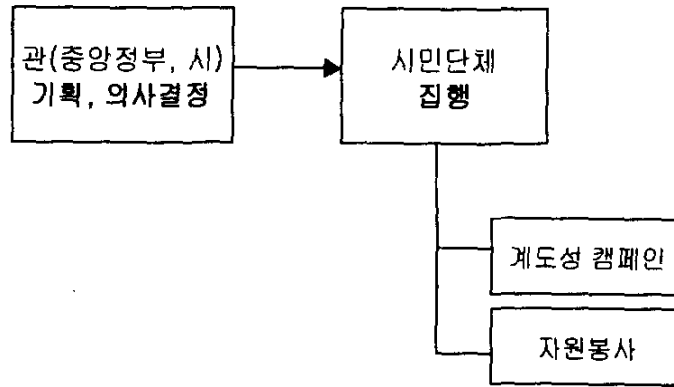
있는 단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민협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과거 관변단체로 분류되는 사회단체들과 직능단체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소위 3대 관변단체가 대표적이다. 물론 그 안에는 홍사단과 같이 중립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체도 일부 있지만 문민협의 조직과 구성상 관변단체들의 집합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순수 민간시민단체는 일정 반정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官)과의 사업협력 역시 상시적이지 못하다. 월드컵에 대한 민간시민단체의 인식에서도 이러한 성격은 드러나는데, 그들은 정부의 월드컵 대회의 정치적 이용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참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정부의 각종사업에 이들 민간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민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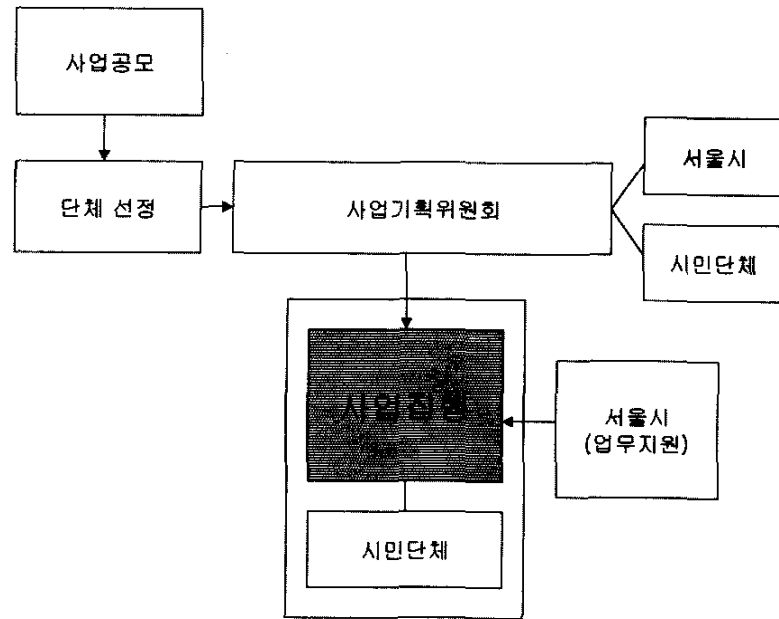
이전 정부 사업에 있어 시민단체는 캠페인 및 계도사업의 집행자 역할 이상은 아니었다. 즉 모든 의사결정권한은 정부기관에 있고 단지 시민단체는 집행에 필요한 인원동원만 하는 형식을 띠고 있었다.

기존 관, 시민단체 간의 결합 방식을 모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기존 민관협력사업 방식>

이제 과감히 시민단체를 기획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성과 지향적이고 동원식 시민단체 유인은 지속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기대할 수 없고, 관(官) 활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 정부(시)에서는 관과 해당 시민단체로 구성되는 사업별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은 정부의 지원 하에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민관협력사업추진의 개선방안>

2) 분야별 특화

정부(시)의 사업, 특히 월드컵에 관련된 사업에 모든 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즉 관과 시민단체가 사업을 통해 완전한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과 역할을 선정하여 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화되는 부분으로는 1) 환경 2) 도시계획 및 교통 3) 시민의식운동(질서캠페인, 시민교육프로그램 등) 4) 문화 관광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특화부문별로 catch phrase를 걸어 사업의 성격을 선명하게 한다. 예를 들면 환경의 경우 'Green World-Cup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추진단' 결성 등을 들 수 있다.

내용적 특화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성격을 고려 차별적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참여연대와 경

실련과 같은 정치 지향적 시민단체의 경우 자문단 형식의 소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환경·사회복지 등 월드컵 대회 지원에 실제 도움이 되고 이후 지속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단체는 위탁과제 수행, 자원봉사활동 기획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축구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참여를 이끌어 자발적으로 월드컵 홍보에 나서게 하고 사회봉사활동 또한 이끌어낸다.

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원봉사활동체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각 자치구와 네트워킹을 이루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

자원봉사자의 날을 제정과 포상, 자원봉사활동 경력의 사회경력화, 장기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지원,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교육과 훈련, 자원봉사자 지도감독 및 평가의 전문화 및 체계화, 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센터 방문의 날,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도화한다.

2)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실시

자원봉사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봉사시간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3) 자원봉사저축은행 실시

자신이 봉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봉사를 누군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4)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문화관련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의 문화관광시설에 배치함

5) 자원봉사보험제도 실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발생시 보험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마음놓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6) 여성자원봉사자 활성화

종교기관이나 각종 주부모임 등의 비공식적 경로를 활용해 홍보한다

7) 학교교과 과정의 활용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킨다

8) 대중매체의 활용

TV, 신문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특집과 성공사례를 방송한다

9) 민간협의체 운동 지원

자원봉사자운동이 민간운동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

로 지원한다

10) 공무원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활동의 인증제도, 채용시 가산점 부가, 사회봉사휴가 제 등을 실시한다

11) 자원봉사자 편의시설 정비

자원봉사자들간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휴게실 등을 확보, 제공한다

12)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센터화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간담회, 상해보험가입 및 활동 복 지급, 자원봉사대회 개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자원봉사 활동 경력 등 인정,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제작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조성한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2 월드컵축구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단순한 체육행사를 치르는 사회동원을 넘어 넓은 의미의 시민참여, 사회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민의 일체감이 고양된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갖추는 일은 경기장, 도로·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 못지 않게 중요하며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인데, 월드컵이라는 한시적 계기를 거기에 맞추므로써 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전제한 것이다.

서론인 제 1 장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사회문화적 현주소, 서울시의 소외계층과 월드컵소외계층, 월드컵 성공을 위한 사회문화정치적 조건과 정치적 개입의 형태 등에 대한 지식을 주로 기존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선조 이래의 전통적 도읍지와 근대시민사회의 특징이 혼재하는 서울은 자본주의적 기회와 억압-굴종의 두 얼굴 속에서 점점 더 사람, 즉 시민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통과 닿아있으면서도 중요한 계기마다 급격한 단절을 겪은 나라의 수도답게 모순에 가까운 이중성을 갖는 서울의 시민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대로 폭발력을 지닐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의 주역으로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소극적 방관자로서, 서울시에게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지 않는 모순 속에 사는 서울 시민은 결국은 시민으로서 자아의 통합과 진실성이 파괴된

이중성 속에 놓인 불안한 존재인 것이다.

서울시민은 스포츠관람자로서 월드컵의 참여자가 될 것이다. 관람자는 월드컵이라는 스포츠를 보면서 한국인이라는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극화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묘기와 선전을 통해 얻는 대리만족은 개인의 자존심을 높이고 승리와 성공의 집단적 축제 속에서 소수에 대한 다수의 동일시를 가져오게 한다. 특히 자본주의적 소외계층의 동일시와 대리만족은 사회통합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통치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이런 '허구적' 축제, 일시적 애국주의에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의 손실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스포츠가 개인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는 자아실현의 차원을 넘어 대리체험을 통한 자아실현의 형태로 바뀌는 순간 스포츠관람자는 현실적 비극세계에서 허구적 영웅세계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은 박제화된 유희의 철창에 갇히게 된다.

소외된 시민들이 소외된 현실을 스포츠관람(참여)으로 보상받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지속성이 없다. 스포츠를 통한 일시적인 정서통합을 지속적인 사회통합의 기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념적 토대와 현실적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스포츠를 통한 통합은 현실적(물질적)-이념적 통합의 보조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스포츠로행위로서의 월드컵과 사회정치행위로서의 사회통합을 긍정적으로 연계하는 일이 중요하고 매력적인 작업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작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관-민-NGO 협력을 통한 개입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 NGO의 현재 역량을 감안할 때, 선부른 협력시도는 오히려 NGO의 시정 괴리를 유발하고 결국 시민통합을 저해할

확률이 절대적이다. NGO(시민단체)의 성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온갖 이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정부 협력관계 구축은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인 것이다. 협력을 시도할 때는 협력대상인 시민단체 하나하나에 대해 면밀히 내부사정을 파악해야 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제2의 건국위원회는 좋은 교훈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제도와 법의 정비, 정보제공과 같은 간접적 기반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민운동 매뉴얼 제작이나 단체운영에 필요한 전문기능을 지원하는 컨설팅 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시민단체를 매개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접근 방식이 성공하려면 우선 서울시부터 작게는 월드컵관련 정보, 장기적으로는 시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시민단체와 공유한다는 열린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 2 장은 서울시민의 물질적 소외와 스포츠 소외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관관계를 도출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월드컵 소외와 관련한 몇 가지 의미있는 발견이 주목된다.

분석결과 일관된 소외계층은 연간소득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을 나타냄으로써 이들이 주요한 정책대상,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홍보와 참여유도정책의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참여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계층이 기본적인 소외계층이겠지만, 이처럼 여유가 있으면서 참여치 않는 냉담계층도 주목해야 한다.

월드컵의 경우 소외의 개념은 소외 당하는 것 뿐 아니라 소

외하는 것, 즉 무관심이나 냉담까지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고소득의 월드컵 소외계층이 갖는 (상대적)무관심이 월드컵이라는 특정 경기종목의 행사라는 사실과 관련된 일인지 아니면 국가행사 자체,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한 냉담의 결과인지는 별도의 연구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축구경기 차원의 문제라면 국가체육정책의 틀에서 접근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인 국민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스포츠'로서의 축구가 어떤 계층적 성격 - 서민스포츠로서의 성격 같은 -을 갖는다면 국가체육정책도 계층성을 감안하여 정립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과정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보인 반응은 대체로 월드컵에 대한 무관심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응답의 가치적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응답태도에 담긴 무관심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운동경기/축구경기에 대한 호감이나 월드컵 개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선언적 평가에만 그치고 '나'와는 관계 없는 행사, '나'는 방관자일 수밖에 없는 행사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번 월드컵은 돈 많이 들여 한바탕 치르고 없어지는 소모성 국가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는 체계적 홍보, 추진조직 내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재조직이 시급하다.

제 3 장에서는 월드컵추진현황을 공식조직과 비공식(자발적, 민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식조직으로는 월드컵추진의 세 축인 조직위, 문민협, 서울시, 비공식조직으로는 자원봉사와 축구동호회 조직을 살펴봤고, 구체적인 사례분석은 아니지만 풀뿌리 시민단체의 전반적 현황에 대한 기본분석도 포함했다.

(서울시)월드컵 시민참여는 주체간 체계적인 연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각개약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 결론이다. 문화관광부-조직위-문민협의 공식 체계는 각각의 조직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동호회 등의 비공식 체계도 공식체계와 연계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비공식체계 내부간 연계도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시민참여의 실질적 기반이자 촉매가 돼야 할 시민단체도 '시민없는 시민단체'로 형해화함으로써 운영자체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의 참여인식을 북돋우고 시민단체의 역할을 활성화할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앞으로 남은 1년 9개월이란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다. 시민참여의식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고양해야 하며, 동시에 상시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가동으로 일상화시켜야 한다. 현 상태에서는 홍보와 교육에서 매듭을 풀 수 있는 효과적 대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성화도 결국은 시민참여의식의 고양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므로 참여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단체를 동원하기 위한 하향적 시도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재정이 열악하고 시민참여도 약한 풀뿌리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월드컵에 가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조기축구동호회와 반상회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 현 상태에서 시민참여의 출발점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가능한 대안은 ①월드컵을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참여의 기운을 고조시키고 참여의 저변을 넓히며 ② 그런 기반에서 월드컵에

대비한 시민조직(예컨대 시민의 모임)을 구성하도록 측면지원하며 ③ 월드컵 시민조직(모임)이 향후 서울시의 자발적 시민참여·시민동원 네트워크가 되도록 발전시키는 식의 단계적 접근 일 것이다.

제 4 장은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기적인 공식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서울시차원에서 “서울시월드컵준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월드컵준비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월드컵추진단이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규모를 늘리는 방안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단과는 협력관계를 갖게 하는 방안 가운데 후자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여러 추진주체간 국가적 협력채널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는 어떤 한 주체가 주도적으로 협력을 이끄는 것도 필요한데, 서울시월드컵준비위원회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시한 체계적 시민홍보의 여러 방안들과 시민참여촉진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예시이므로 향후 관련전문가들의 폭넓은 자문을 거쳐 확대, 심화해야 할 것이다. 홍보전략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여러 방법들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시행방법은 본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원칙적 방향만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이 단순한 질서의식 배양과 같은 의식개혁뿐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확립하는 한편 외국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서울시민 중 월드컵에 대한 상대적소외집단(무관심집단)은 고소득층과 여성이다.
- ② 현 시점에서 무관심에 가까운 서울시민의 월드컵참여의식을 고취할 전략과 대안들이 절실하다.
- ③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공식추진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적극적 홍보, 교육전략이 필요하다. 공식추진조직으로 “서울시 월드컵준비위원회”(가칭)의 신설이 필요하다.
- ④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다. 그 보다는 시민에 직접 작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역으로 시민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에필로그

최근 한국축구의 경기력 부진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최대요인이다. 지난 30여년간 국민소득이 수십 배 늘고 선수들의 체격조건도 월등히 성장했음에도 한국 축구수준은 제 자리를 맴돌고 있다.

두뇌와 전술에 바탕을 둔 유연한 축구를 등한시한 채 어렸을 때부터 우격다짐의 옥쇄전투식 축구에 길들다보니 축구를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선수, 축구선수 출신 행정가들이 모두 '맨땅에 헤딩' 식의 축구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관람자이자 응원자인 일반대중은 덩달아 이기고 지는 데만 일희일비할 뿐 왜 이겼고 왜 졌는지, 또 승패에 관계없이 축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거의 없다. 또한 한국축구를 저변에서 지탱하고 있는 아마추어 조기축구 동호회원들은 대부분이 축구기술 수강경험이 없어 기본기인 킥마저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조악한 동네축구를 반복재생산하고 있다. 한 마디로 축구에 관한 한 '양은 풍부하나 건질게 별로 없는' 것이 한국축구의 현 주소다.

이런 상태에서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고 2002년 월드컵도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축구의 경기력 수준이 높아지면 승패에 관계 없이 국민의 사랑을 받으나, 수십년간 답습한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겨야만 외면당하지 않게' 된다. 경기력도 없고 이기지도 못할 경우에는 한국축구와 월드컵은 실패쪽으로 가기 쉽다.

한국축구의 부진은 한국 스포츠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반영

한다. 스포츠를 국가정책으로 다루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엘리트 일변도의 지원정책인데다 정책종목 자체가 국민의 전반적 체력향상과 기상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필요한 종목이라는 점이다. 메달만 따다면 무엇이든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의 기본이다.

그러다 보니 아마추어 동호인 저변은 거의 없이 수 십명, 수 백명의 선수들만으로 이루어진 종목이 마치 토양과 격리된 화분의 꽃처럼 '그들만의' 땀에 의해 메달로 '선양'하려는 눈물겨운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의 기본을 익히고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레 선수가 나오고 그 선수는 저변의 수많은 동호인들에 의해 진정한 스타로 사랑 받는 건강한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스포츠 정책이다. 메달은 그 다음이다. 4년마다 한번씩 무슨 경시대회나 입학시험 치르는 것처럼 메달 몇 개로 몇 등 하는 식의 일회성 자기만족은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이다. 상위목표(국민의 육체적 건강)와 하위목표(국가대표 선수의 성적)가 전도됐기 때문이다.

한국스포츠의 얕은 뿌리에는 한국 사회의 부박함이 담겨있다. 과정과 노력보다는 결과만으로 상벌을 내리는 풍토와 같은 사회적 척박함 속에서 스포츠 전반, 특히 축구의 모습은 왜곡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2002년 월드컵이 성공하려면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경기인들은 축구기술을 널리 알리고 지식인들은 축구경기의 이론적 철학적 의미를 전파하며 행정가와 기획가들은 축구 붐

을 확산시키는 대안들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나아가, 축구로 발아시킨 씨앗을 국민스포츠 전반으로 확산함으로써 건강한 국민정신과 시민의식의 토양을 일구어야 한다.

2002년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삼아 그동안 성장 일변도로 질주해 온 사회에서 신봉해 온 양적인 삶의 가치를 질적인 가치로 바꾸고 사회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월드컵의 의미를 절실히 깨닫고 축구의 중요성과 재미를 느끼는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월드컵에 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본 연구는 그런 전략을 위한 하나의 단서다. 그러나 축구에 관한 것만으로 월드컵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단서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체육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행정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월드컵에 대비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월드컵을 남북한이 공동개최할 경우, 통일에 대비한 한국사회의 준비,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전략과 같은 민족내부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및 동북아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및 실천 대안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경의선 철도복원과 같은 인프라 작업, 나아가 세계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인터넷 '한민족네트워크'(www.hanminjok.net)와 같은 민족통합프로젝트를 월드컵개최와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여러 이론과 전략이 필요하다. 민족통합과 동아시아 평화의 큰 목표에 닿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월드컵을 활용함은 시대적 민족적 소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강홍빈.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서울: 서울학연구소, 1996.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창립 1주년 자료집」(1990).
- 菅原禮 편저, 조명열·부기원 공역. 「스포츠사회학의 기초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4.
- 권태환 외. 「서울의 전통 이해-인구와 도시화」.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7.
- 김영석. 「스포츠와 미디어 그리고 마케팅」. 서울: 신아, 2000.
- 김종기 외.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성과」.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9.
- 김호기 엮음. 「마르크스주의 소외론 연구-독점자본주의와 노동의 소외」. 서울: 청아, 1986.
- 박호성. “루소의 정치사상-시민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3).
- 박호성. “한국의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과제.” 중산 민준기선생정년기념논문집(근간).
- 박홍규·정홍익·임현진 공편. 「스포츠사회학」. 서울: 나남, 1994.
- 송도영 외. 「주민 생애사를 통해 본 20세기 서울 현대사」. 서울: 서울학연구소, 2000.
- 유팔무, 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1995.
- 이존희. 「서울의 문화유산탐방기」. 서울: 서울학연구소, 1997.
- 이학래 외. 「한국체육사」. 서울: 지식산업사, 1994.
- 이학래 외. 「현대사회와 스포츠」. 서울: 사람과 사람, 1998.
- 이학래. 「한국근대체육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0.
- 임수원·안우홍 편저. 「스포츠사회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8.

- 장철수 외. 「서울의 사회풍속사」. 서울: 서울학연구소, 1995.
- 정동성. 「스포츠와 정치」. 서울: 사람과 사람, 1997.
- 정문길. 「소외론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78.
- 제프리 시그레이브·도널드 추 편저, 정성태·김창규 공역.
「올림픽의 사회학」. 서울: 중앙일보사, 1984.
- 프롬 저, 김창호 역. 「마르크스의 인간관」. 서울: 동녘, 1983.
-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와 인식」. 서울: 민음사, 1984.
- 한영주. “월드컵과 도시발전: 2002년 월드컵의 개최전략과 실천방향.” 「도시문제」 (2000. 10).
- 현대사회와 스포츠 교재 편찬위원회. 「현대사회와 스포츠」.
대구: 경북대출판부, 1998.
- “한국민간단체의 현황-한국 민간단체총람2000 분석.” 「민간단체 종합정보 네트워크 2000 자료집」 (1999. 10).
- 「NGO2000 시민참여한마당 개최 기념토론회 자료집」 (2000. 5).

2. 국외문헌

- Marcuse, H. *Reason and Revolution: Hegel & the Rise of Social Theory*. Boston: Beacon Press, 1964.
- Rader, Melvin. *Marx's Interpretation of Histor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Rousseau, Jean-Jacques. "Narcisse ou l'amant de lui-même; 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 Projet de constitution pour la Corse; Emile ou de l'éducation." éd., Bernard Gagnebin et Marcel Raymond. *Oeuvres complètes*, Vol. II, III, IV.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78-1985.
- Schacht, Richard. *Alienation*.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70.
- Shills, David.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I. New York: Macmillan and Free Press,
1968.

Simon, R. L., 김남영 외 공역. 「스포츠와 가치」. 서울: 태근,
1995.

부 록

2002 월드컵 관련 서울시민 참여의식 조사

- 일반시민용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이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드컵은 국가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스포츠 행사의 차원을 넘어 사회전반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경기시설과 자원봉사자 동원 계획 등 외적인 준비가 예정대로 잘 진행중이어서 현재로서는 순조로운 월드컵 개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 모두가 월드컵을 '우리' 행사로 생각하고 적극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도 사회 구석구석에 골고루 흐르고,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시민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 월드컵 지원연구의 일환으로, 서울시민 여러분의 참여의식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월드컵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자료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시고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7월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호성

전화 : 733-1091 팩스 : 733-1094 이메일 : jlee@okf.or.kr

응답자 :

면접원 :

전화번호 :

면접일시 : 2000. 7.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15세 미만 ② 15-20세 ③ 20-30세 ④ 30-40세 ⑤ 40-50세 ⑥ 50세 이상
3. **직업**
 - ① 무직 ② 봉급생활자 ③ 중소기업영업자 ④ 중소기업경영 ⑤ 전문서비스업 (법률, 회계, 의료 등) ⑥ 재산소득자 ⑦ 기타()
4. **가구 연간소득**
 - ① 500만원 미만 ②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③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 ④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⑤ 3000만원 - 5000만원 미만 ⑥ 5000만원 이상
5.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6. **운동경기 관람이나 시청을 좋아 하십니까?**
 - ① 아주 좋아 한다 ② 좋아한다 ③ 싫어 한다 ④ 아주 싫어 한다 ⑤ 관심없다
7. **축구경기 관람이나 시청을 좋아 하십니까?**
 - ① 아주 좋아 한다 ② 좋아한다 ③ 싫어 한다 ④ 아주 싫어 한다 ⑤ 관심없다
8. **한국의 월드컵 개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잘 한 일이다 ② 잘한 일이다 ③ 잘 못한 일이다 ④ 아주 잘못된 일이다 ⑤ 관심없다
9. **위 8에서 ①이나 ②로 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발전 등 국가발전의 좋은 계기이므로 ② 국가 이미지와 위신을 높이기므로 ③ 한국축구 발전의 계기가 되므로 ④ 국민단합의 계기가 되므로 ⑤ 기타()
10. **위 8에서 ③이나 ④로 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국가재정 낭비 ② 국내정치 등 해결할 중요한 문제를 호도 ③ 불필요한 인력동원 낭비 ④ 기타 ()
11. **자원봉사 경험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12.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면 어떤 행사였습니까?**
 - ① 체육행사 ② 문화행사 ③ 시민캠페인 ④ 기타 ()

13. 2002년 월드컵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4. 2002년 월드컵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실 의사가 있다면 어떤 분야의 자원봉사를 원하십니까?

- ① 경기장 보안·안내 ② 보도·홍보 보조 ③ 번역·통역 ④ 거리질서·안내 ⑤ 문화·관광안내 ⑥ 기타 ()

15. 2002년 월드컵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실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 낭비이므로 ② 경험과 자신감이 부족해서 ③ 불필요한 행사로 자원봉사할 가치가 없으므로 ④ 나와는 관계 없는 일부 인사들만의 행사이므로 ⑤ 기타 ()

16.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로 1, 2, 3위 기입)

- ① 훌륭한 경기장 및 관련 시설 ② 안전 ③ 원활한 시내교통 ④ 효과적인 자원봉사 ⑤ 쾌적한 도시환경 ⑥ 훌륭한 숙박 관광시설 ⑦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소외계층의 참여 포함) ⑧ 일반시민을 위한 사회체육시설 확충 ⑨ 기타 ()

17. 위 16 중 서울에서 가장 미흡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 나열) ()

18. 월드컵소외계층(축구를 싫어하는 사람, 생업에 바빠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사람, 장애인, 노약자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작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적 홍보 및 여론 조성 ② 참여의 물질적 동기 제공 ③ 참여의 사회적 기반 제공(상시네트워크, 시민교육 프로그램 등) ④ 기타 ()

19. 월드컵이 시민 통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기여 ② 어느 정도 기여 ③ 별로 기여 못함 ④ 전혀 기여 못함 ⑤ 오히려 통합에 저해됨(이유?)

20. 월드컵이 시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월드컵이 시민 통합에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2002년 월드컵을 국가 및 서울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바쁘신데도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 월드컵 관련 서울시민 참여의식 조사

- 축구관련 단체용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이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드컵은 국가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스포츠 행사의 차원을 넘어 사회전반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경기시설과 자원봉사자 동원 계획 등 외적인 준비가 예정대로 잘 진행중이어서 현재로서는 순조로운 월드컵 개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 모두가 월드컵을 '우리' 행사로 생각하고 적극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도 사회 구석구석에 골고루 흐르고,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시민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 월드컵 지원연구의 일환으로, 서울시 축구관련 단체의 참여의식 및 준비상황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월드컵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7월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호성

전화 : 733-1091 팩스 : 733-1094 이메일 : jlee@okf.or.kr

응답자 소속 :

성명 :

전화번호 :

면접자 :

면접일시 : 2000. 7.

1. 단체명칭

2. 설립(조직)년월

3. 회원수(또는 가입단체수)

4. 활동현황

가. 자체 정기전

나. 대외 정기전

다. 내부 친목 행사

라. 대외 친목행사

마. 시민캠페인 참여 등 행사

바. 타 경기조직과 교류행사

5. 2002 월드컵에 대한 준비상황 및 요구사항

가. 월드컵 참여·봉사 계획 또는 추진실적

나. 소외계층의 월드컵 참여를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안

다. 시민캠페인 참여 등 과거 경험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개선요망사항)

라. 월드컵조직위에 가장 바라는 것

바쁘신데도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연 2000-PR-07

2002년 월드컵과 시민통합과제

발행인 권원용

발행일 2000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4-5

전화: (02)726-1201 팩스: (02)318-4779

홈페이지 : www.sdi.re.kr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